S-OIL 리더의 일하는 방식

직원에게 주어진 업무와 무관한 지시 하지 않기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움직이는 표지와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S-OIL 리더의 일하는 방식

- **WORK EFFICIENCY**
  WORK & LIFE BALANCE
  업무 지시는 6하 원칙에 의거 명확하게 한다.
  직급별 순차 대면 보고보다 이메일을 통한 동시 보고를 적극 실행한다.
  사전에 약속된 미팅 시간을 준수하고, 비정기 회의는 최소화 한다.

- **OPENNESS**
  CREATIVITY
  직원이 먼저 말하게 하고, 끝까지 경청한다.
  새로운 제안에 대해 적극 칭찬한다.
  회의 시 모든 참여자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도록 보장한다.

- **MUTUAL RESPECT**
  HORIZONTAL CULTURE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예의 갖추고 배려한다.
  보고의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이야기한 뒤 보완을 요청한다.
  직원에게 주어진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

- **EMPOWERMENT**
  CULTIVATION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고, 중간점검과 코칭을 통해 실행을 돕는다.
  직원의 모든 보고에 발전적인 피드백을 보내준다.
  직원의 직무순환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OCTOBER
2019

VOL.455

COVER STORY

MUTUAL RESPECT HORIZONTAL CULTURE

직원에게 주어진 업무와 무관한 지시 하지 않기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보면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는 괴롭힘으로 분류됩니다. 가령 상사의 사적 용무를 포함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직원 업무와 무관한 지시 등은 적정범위 밖의 행위입니다. 여성에게 커피 심부름을 요청하거나, 남성에게 생수 물통을 교체하라는 등 고정된 성 역할에 기반한 행위를 강제로 요구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변화하는 우리

04 핵심가치 히어로
[열정] 방수혁 사우(군산저유소)

06 고전 속 핵심가치
[열정] 우공이산
집념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다

08 달리는 희망 주유소
동방1주유소

10 가족 추억공작소
박병태 사우(장치1과) 가족

12 달콤한 퇴근길
[시 창작] 박동환 사우(동력5과)

14 함께하는 풍경
- 사우디아람코 공동
  아시아태평양석유회의 리셉션
  & 싱가포르지사 이전 설치
- 세계에너지총회 참가
- 이데미츠사 윤활사업 협력 30주년
- 하반기 정기보수·점검 특별 안전결의대회
- 과학문화재단 한-아랍 청년교류 프로그램
- 본사·공장 족구동호회 대회 참가기

22 두런두런 이야기방
- 페로제도 여행기
- 버섯 채취 사연
- 어머니 동행 추석 이야기

08

10

12

28

32

함께 보는 세상

28 **꽃청춘 수학여행**
화산섬 따라 커피로드
[인도네시아 발리 바리스타 여행]

32 **마을숲을 걷다**
꺾임 없는 강인한 생명력
[성주 경산리 성밖숲]

36 **성장달力**
한솥밥 유대감의 힘
[단합력]

38 **취미탐구생활**
[체력투자형] 취미 정보

40 **이달의 활력평가**
10월 탐구영역 [한글]

42 **캔버스 연구실**
흰색 물감 & 산드로 보티첼리 <봄>

성장의 S-OIL

44 **주요 경영활동**
- 장애청소년 학습용 맞춤 보조기구 전달

45 **단신**
-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10년 연속 '월드' 기업 편입
- 영업성과 우수지사 시상

46 **햇살나눔**
- HYC공장봉사단 노인복지관 어르신 동행 샌드아트 체험
-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공연
- 생산지원부문봉사단 어르신 수예 활동 보조

49 **임직원 동정**

50 **독자마당**

통권 제455호 **발행일** 2019년 10월 7일 **발행처** 에쓰-오일 주식회사 광고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92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제작** ㈜디자인소호 02-514-5164·㈜성환인쇄 02-2273-0583

내일로 이끄는 집중

[Sustainability Foundation] 표창자

방수혁 사우(군산저유소)

공정·열정·안전의 삼박자

역량 있는 인재들이 모인 구성체라 해도 관리와 운영에 소홀하면 조직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군산저유소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방수혁 사우는 기본에 충실하며 13년 연속 무사고를 달성하고 있다. 방 사우는 올해 초 'Sustainability Foundation' 부문 표창을 통해서도 공로를 인정받았다.

군산저유소는 4년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공정안전관리(PSM) 등급평가에서 두 번 연속 최우수 등급인 'P'등급을 획득했다. 올해 P등급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5.3%에 불과할 만큼 까다로운 선정 기준도 거뜬히 통과했다. 방 사우는 P등급 획득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군산저유소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군산저유소 위험물

저장탱크 7기 보수·법정검사', '부두시설 도장·보수공사'를 포함해 각종 공사와 용역 수행에서 안전하고 높은 품질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P등급 사업장은 매년 받아야 하는 압력안전밸브(PSV) 테스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검사비용면에서도 절감 효과가 있죠. 하지만 저희는 유지보수와 관리 차원에서 해마다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방수혁 사우는 비상사태에 대한 반복적인 훈련과 안전업무 담당자와 하루 두 차례 정기적인 현장 순찰을 십 수년째 이어오며 군산저유소의 지속가능한 안전 기틀을 더 공고히 다진다.

세심한 관찰과 관심으로 이룬 성과

"저유소는 단순히 입출하 업무만 담당하는 곳이 아닙니다. 공장에 제품운영과, 해상출하과, 육상출하과, 업무팀 등이 나뉘어있다면 이곳에서는 그 모든 업무가 다 이뤄지는 공장의 축소판입니다."

방수혁 사우의 '운영·관리' 업무의 가운뎃점에는 무수한 업무가 생략돼 있다. 방 사우를 포함한 13명의 직원들 역시 마찬가지다. 선박 물량 저장부터 실험·분석 뒤 원활한 출하까지 체계적인 업무 분담과 책임감으로 모든 업무를 완수한다.

"인원이 적은 만큼 서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야 업무가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선배들이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후배들은 새로운 에너지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내년 입사 30년을 맞는 방 사우는 위·아래 세대를 연결하는 소통의 매개로서 중견리더의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한다. 특히 후배들에게는 무사고 업무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며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최우선으로 군산저유소를 이끌어간다. 그의 기본을 지키는 신념과 이유 있는 고집은 후배 동료들에게 좋은 교과서다.

한편 건물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듯 저유탱크 역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11년 주기로 개방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군산저유소는 2004~2005년, 2015~2018년 개방검사를 진행했다. 순환보직으로 직원 대다수가 경험하지 못하는 반면 방 사우는 두 차례나 큰일을 치렀다.

"개방검사는 내용물을 순차적으로 비워야 하기 때문에 두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총 7기의 탱크를 검사했는데 매우 위험한 작업을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쳐 개인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방 사우는 처음 접하는 후배들에게 비어있는 탱크 내부의 구조물 명칭 등을 알려주며 각자 업무의 막중한 책임감을 일깨웠다.

최대 과제와 목표는 절대 무사고

"시설은 유지보수가 중요합니다. 비용절감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나죠. 소소한 부분이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확인하며 보수하면 조치도 쉽고 유지기간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관심과 관찰은 방수혁 사우가 꼽는 업무 철칙이다. 동료들에게 매일 반복되는 업무에 저유소 작업 환경의 특수성이 매몰되지 않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집중할 것을 강조한다.

"애정을 갖고 보살피듯 작업환경을 살피다보면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작은 의견이라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는 것이 저의 임무이기도 하고요."

그는 직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도록 적극 독려하며 실행되도록 힘을 보탠다. 이것이

30년 한결같은
열정의 원천은

관심과 관찰입니다

2003년 군산저유소로 발령받아 선배들에게 배운 점이자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다.

방 사우는 업무 중 쌓인 피로와 긴장감을 휴일 자전거 라이딩으로 다스린다. 현재에 오롯이 집중하며 달리듯 방 사우의 열정은 군산저유소의 내일을 향한다.

주요 공적

- 고용노동부 PSM 등급평가에서 최우수 P등급 획득에 주도적 역할 수행
- 반복적 안전 관리 훈련으로 위험 대응력 강화
- 저유소 13년 무사고 달성·유지

愚公移山

우 공 이 산

집념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다

핵심가치
[열정] 편

성공의 근원은 마음에서

중국 한나라 초기의 명장 이광은 말타기와 활쏘기 명수로 이름을 날렸다. 하루는 사냥을 나갔다가 갑자기 커다란 호랑이와 맞부딪히게 됐다. 당황한 그는 있는 힘껏 화살을 쏘아 호랑이를 명중시켰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가 쏜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바위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화살이 바위에 깊숙이 박혀 있었다. 깜짝 놀란 이광은 다시 앞서 자리로 돌아와 바위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이번에는 화살만 부러지고 말았다. 똑같은 조건에서 화살을 당겼지만 한 번은 기적을 일으켰고 한 번은 화살만 부러졌다.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외부 현실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있다.

성취한 사람들의 성공 요인 가운데 하나는 불굴의 집념이다. 계획한 일이나 목표를 향해 노력하다 보면 지치는 순간이 있다. 금세 될 것 같던 일도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기고, 붙으리라 생각했던 도전도 연거푸 떨어진다. 한두 번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마음을 다잡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 자신감은 점차 줄어든다. 얼마나 더 해야 하는지 불안감마저 엄습한다. 하지만 꿈을 성취한 사람의 재능은 특출난 무언가가 아니다. 불굴의 집념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열정이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교훈은 불굴의 의지가 가져다주는 값진 선물에 관한 것이다.

하늘도 감동한 집념

중국 북산에 아흔 살 되는 우공(愚公)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우공과 가족들은 외출할 때면 늘 한숨을 푹 내쉬었다. 집 앞에 태형산과 왕옥산이 가로막고 있어 외출할 때는 산을 빙 둘러 길을 돌아가야 했다. 어느 날 우공은 두 산을 옮겨야겠다고 결심했다. 가족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집 앞에 큰 산이 버티고 있으니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구나. 우리가 힘을 합쳐 저 산을 옮겨야겠다." 가족들은 한마음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우공의 아내만은 혀를 찼다. "쯧쯧! 돌덩이 하나라도 옮길 힘이 어디 있어요? 설령 산을 옮긴다 해도 그 많은 흙과 돌은 어디다 버린단 말예요?" "내가 다 계획이 있소. 흙과 돌은 발해에 갖다 버리면 되오." 결국 아내도 우공의 집념을 꺾지는 못했다. 다음날부터 우공과 그의 아들, 손자들은 산을 옮기기 시작했다. 돌을 쪼개고 흙을 나르는 일이 날마다 계속됐다. 발해만까지 왕복하는 데만 꼬박 일 년이 걸렸다. 마을 사람들은 우공을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지수라는 사람은 더욱 비아냥거렸다. "살아있는 동안에 산을 옮기지도 못할 텐데 뭣 하러 그런 일을 시작하나? 도대체 정신이 있는가?" 그러나 우공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내 생전에 산을 옮기지 못하면 어때?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이어서 옮기고, 또 아들의 아들이 옮기고, 또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옮기면 언젠가는 산이 옮겨지지 않겠어?" 우공의 말에 말문이 막힌 지수는 머리만 긁적이며 돌아갔다.

그런데 정작 진짜 당황한 것은 그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었다. 계속해서 산을 허물다가는 산이 없어질지도 모를 판국이었다. 덜컹 겁이 난 산신령은 곧 옥황상제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옥황상제는 오히려 우공의 정성과 노력에 큰 감동을 받았다. "기특하구나. 정말 갸륵해. 저 산을 옮겨주거라." 옥황상제의 명령에 사신들은 두 산을 번쩍 업어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 연유로 원래 기주 남쪽에 있던 태형산과 왕옥산은 오늘날 삭동과 옹남에 자리하게 됐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중국 고전 〈열자(列子)〉 '탕문(湯問)' 편에 실린 이야기이다.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도 끊임없이 시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낼 때가 있다. 전구가 빛을 내기까지 이천 번을 실패한 에디슨이 기자에게 전한 말은 지금도 명언으로 남아있다. "그토록 많은 실패를 한 소감이 어떠합니까?" "실패라니요. 난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전구가 켜지지 않은 이천 가지 이유를 알았을 뿐입니다." 일을 성공하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는 성공을 위한 훌륭한 밑거름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집념이 없음을 돌아봐야 한다.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불굴의 의지는 산을 옮긴다.

글. 박수밀
한양대 인문과학대학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리더의 말공부>
<연암 박지원의 글 짓는 법>
<옛 공부벌레들의 좌우명>등
저서가 있다.

핵심가치 [열정]을 되새기며
필사로 사자성어를 익혀보세요!

愚公移山

우공이산 집념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루다

愚公移山 愚公移山 愚公移山 愚公移山 愚公移山

맵시 있게 피어나는 친절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천년 고도 경주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기와지붕이 빼곡하다. 그 가운데 탁 트인 부지의 전통 건축과
노란 간판이 신선한 조화를 이루는 주유소가 있으니.
대형차 주유부터 세차까지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동방1주유소다.

동방1주유소

오른쪽부터
신현동 대표
아내 김명진 씨
정문현 주유원
양승모 전무

동방1주유소

경북 경주시 산업로 3496
054-748-8840

대형차 고객들의 오아시스

동방1주유소는 약 3개월에 걸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올 7월 셀프주유소로 새 단장했다. 신현동 대표는 지난 십여 년 동안 쌓인 묵은 때를 벗기고 1천700평 부지에 다양한 편의공간을 알차게 채웠다. 사무실이자 고객 휴게공간으로 썼던 건물에는 경주 명물인 경주빵·찰보리빵 가게를 차리고 셀프주유기, 자동세차기, 셀프세차장, 샤워실, 휴게실 등을 새롭게 설치 또는 리모델링했다. 이러한 변화는 갈수록 다변화하는 주유소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자 셀프주유소로 전환하면서도 기존 인력을 감축하지 않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 주유소는 대형 화물차 고객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때문에 리모델링도 화물차 고정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부분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1톤 트럭부터 대형 견인차까지 대형차를 위한 셀프버블세차장과 널찍한 주차공간, 휴게공간이 있죠."

야간 장거리 운전이 잦은 화물차는 헤드라이트와 그 주변에 벌레 잔해가 엉겨 붙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오래 방치하면 차체에 녹이 스는 주요인이 된다. 신현동 대표는 차체가 높고 길어 세차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차량을 위해 인근 지역에서 가장 처음 대형차셀프세차장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생수, 빵, 물티슈, 커피, 목장갑을 무료 제공하는 등 폭넓은 서비스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화물차 고객은 무엇보다 맘 놓고 쉴 곳이 필요하거든요. 주유부터 식사, 휴식, 세차까지 대여섯 가지 편의를 동방1주유소에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화물차 고객에게는 우리 주유소가 그야말로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죠."

센스와 섬세함으로 위기 타개

신현동 대표의 남다른 감각은 주유소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듯 캐비닛에 깔끔하게 진열된 차량용품들은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조명에 갓을 씌워 칠흑 같은 밤에도 주유기가 잘 보이도록 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서도 섬세한 배려가 돋보인다. 이마저도 부족함을 느낀 신 대표는 늦은 시간까지 고객 응대와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주유소 2층에 살림 공간을 마련했다.

해질녘이면 주유소 서쪽 탁 트인 평지 너머로 붉게 물 드는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데, 노란 주유기를 밝게 비추는 조명이 저녁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감성적인 주유소 풍경이 만들어진다. 한번은 우연히 지나가던 바이크동호회가 아름다운 야경에 바퀴를 멈추고 동방1주유소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도 했다. 동호회원이 촬영한 사진과 사연이 고객의소리(VOC)로 알려지면서 자연스레 홍보 아닌 홍보가 됐다.

"지난해 1월 인근에 경주IC로 이어지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통되면서 매출량이 30%가량 떨어졌습니다. 셀프주유소 전환과 리모델링에는 이러한 위기가 동기로 작용했죠. 다행히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매출도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반경 2㎞ 이내에만 여러 정유사의 주유소가 여덟 곳 자리해있다. 그나마 주유업 불황으로 줄어든 숫자다. 신현동 대표는 지리적·환경적·경제적 요인을 고려하며 오늘의 동방1주유소를 꾸렸다. 앞으로는 일반 승용차 고객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 매출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전국의 에쓰-오일 주유소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동지애를 갖고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줍시다. 끊임없는 변화에 적응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동방1주유소 성공 전략 3

1 몸도 마음도 새 단장
셀프주유소로 전환을 계기로 우리회사의 지원을 받아 10여 년간 묵은 때를 벗고 새 단장을 마쳤다. 사무공간·휴게공간 확장, 경주빵 가게 개점, 주차장 신설 등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한층 쾌적하고 편의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형차 맞춤 서비스
전체 고객 중 80%를 차지하는 대형차 고객의 요구를 파악해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갖췄다. 대형차 셀프세차장과 널찍한 휴게공간·샤워실을 마련하고 생수, 커피, 물티슈, 목장갑 등 대형차 고객 맞춤 편의용품을 제공한다.

3 끊임없는 서비스 창출
계속해서 변화하는 주변 지리적·경제적 환경에서 살아남고자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고민한다. 기존 대형차 고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이제는 주유 대상 다양화와 주유 혜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

기쁜 우리 젊은 날

박병태 사우(장치1과) 가족

달콤한 신혼이 엊그제인 것 같은데 어느덧 세 남매의 아빠가 되기까지 세월이 흘렀다. 다섯 식구의 지붕이자 기둥인 다둥이 아빠 박병태 사우는 더 늦기 전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는 믿음대로 즐거이 움직이려 한다.

가을 스튜디오는 봄

궂은 바깥 날씨와 달리 촬영 현장은 화창한 봄이다. 다섯 식구로 북적이는 스튜디오는 긴장감 대신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이날 분위기 메이커로 활약한 주역은 단연 박병태 사우 부부의 세 자녀다.

"이곳 스튜디오는 특별한 곳이에요. 우리 애들 셋 전부 여기에서 돌 사진과 성장앨범 촬영을 진행했거든요. 인연이 남달라 가족촬영도 이곳으로 선택했습니다."

박병태 사우는 열다섯 살 큰아들부터 열한 살 막내까지 두 살 터울의 남매 셋을 둔 다둥이 아

빠다. 아이 제법 자라고 나니 함께 외출하면 마음까지 든든하다.

흰 셔츠와 청바지를 맞춰 입고 카메라 앞에 서니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한 표정이 얼굴 가득 번진다. 연습이라도 한듯 일사천리로 촬영 전개가 빠르다 싶더니 본 촬영을 위한 몸 풀기다. 박 사우와 신호를 주고받은 사진작가는 아내와 아이들을 드레스룸으로 안내한다. 이틀 뒤 아내 생일을 맞아 박 사우가 몰래 계획한 웨딩 촬영 이벤트다.

"피규어도 제작한다니 때마침 잘됐다 싶었어요. 가족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가족 모두 턱시도와 드레스를 차려입고 한껏 멋을 내자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스튜디오가 화사해진다.

친구처럼 연인처럼
오래오래 건강하게
즐겁게 살아요

우리

박병태 사우, 아내 최방순 씨,
첫째 서찬 군, 둘째 민찬 군,
셋째 서인 양

서열 꼴찌 다둥이 아빠

"우리 공주 잘하네~"

두 오빠들 장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델 못지않은 집중력으로 촬영에 임하는 소녀는 박병태 사우 부부의 고명딸 서인 양이다. 이쯤 되니 가족 내 서열이 궁금해진다. 두 아들은 당연히 여동생이 1위, 엄마가 2위라며 입을 모은다. 박병태 사우는 두 아들의 농담 아닌 농담에 핀잔을 주면서도 마냥 귀여운 듯 서열 꼴찌를 자처한다. 아이들의 촬영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는 박 사우의 얼굴에 연신 미소가 핀다.

"말투는 무뚝뚝하게 내뱉지만 참 자상해요. 아이들이 좋아한다며 식당 사장님에게서 직접 배워 온 계란찜은 남편의 전매특허에요."

아내 최방순 씨의 칭찬이 멋쩍은 듯 슬쩍 자리를 옮기더니 이내 아이들 곁에서 친구처럼 티격태격 장난을 주고받는다. 그런 박 사우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호환마마보다 무섭다는 중2 아들도 건강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다.

"아이들 모두 순하게 자랐어요. 큰아들은 확실히 사춘기라 전보다 고집도 생기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으려 하지만 속이 참 깊어요."

박 사우는 지난해 생일 때 아들 서찬 군이 용돈 모아 선물한 건강기능식품을 최고의 선물로 꼽는다. 아이들 앞에서 피곤한 내색 한 번 하지 않았지만 부모의 고단함을 알아준 것 같아 대견하다. 첫째가 든든한 지원군이라면 둘째 민찬 군은 윤활유 같은 존재다.

"둘째는 '자유영혼'이에요. 셋 중에서도 가장 활기찬 성격이죠. 형과 동생 사이에서 관계조율도 잘 하고 스스럼없이 모두와 잘 어울립니다."

여기에 두말할 것 없이 온 가족의 귀염둥인 막내 서인 양 소개까지 아이 셋 자랑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박 사우다.

아내 향한 첫 번째 프러포즈

"결혼할 때 특별한 프러포즈가 없어 아내가 내심 서운했을 텐데 늦게나마 생일을 핑계로 스튜디오에 부탁했어요. 아내도 기뻐하면 좋겠네요."

박 사우의 기대에 부응하듯 아이 셋 엄마가 무색하게 아름다운 신부로 변신한 아내 모습에 박 사우는 눈이 동그래진다. 드레스 입은 엄마 모습에 아들들은 개구쟁이처럼 키득키득 웃으면서도 눈을 떼지 못한다.

"남편이 생일 선물을 이벤트로 대신하면 안 되는데 한번 지켜봐야겠네요.(웃음)"

결혼과 동시에 서울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울산에서 아이 셋을 연이어 낳아 키우며 묵묵히 가정을 건실하게 가꿔온 아내이기에 박 사우는 늘 미안하고 고맙다. 더욱이 지인 한 명 없는 울산에 내려온 지 15년이 흐른 지금, 사우 가족들과도 스스럼없이 지내며 자타공인 울산 마당발이 될 만큼 아내는 박 사우에게 최고의 보물이다.

박병태 사우는 오늘이 부부에게는 가장 젊고 예쁜 날, 아이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가족의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다섯 줄 시선의 기록

시 창작

글. 박동환(동력5과)
사진. 디자인소호

시와 사진과 꿈

문학이 좋았지만 아버지 권유대로 전공을 선회했다. 배우고 익힌 분야에 따라 밥벌이 한 세월이 사반세기를 지나고 있다. 그 사이 문학도의 꿈은 잊힌 줄 알았다. 마흔 즈음이었다. 되살아난 갈증은 중년에 다시 겪는 사춘기 같았다. 무언가 해봐야하지 않을까, 슬며시 자문했다. 창작의 오솔길로 접어드는 데 큰 결심은 필요치 않았다.

'디카시'를 쓴다. 디카시란 디지털카메라를 축약한 '디카'와 시(詩)를 합친 말이다. 시대가 낳은 장르다. 시와 사진이 서로 어울리되 각각 독립된 '포토 포엠'과도 다르다. 디카시는 문자 자체로는 시적 완결성이 없다. 찰나의 영상과, 거의 동시에 섬광처럼 스치는 시상을 다섯 줄 이내 문자로 표출해 하나로 묶어야 비로소 완성이다. 작품은 쌓이고 쌓였다. 그리고 <길 위에서 철학을 하다>라는 디카시집이 나왔다. 4부로 나눠 총 74편을 담았다. 앞서 다른 시인들과 공동으로 펴낸 <삼詩 세끼>에 이어 두 번째 책이자, 홀로 낸 첫 시집이다.

문학의 꿈에 다시 불을 지피면서 길을 찾았다. 공모 경로부터 살폈다. 지역사회 문화

예술계에 문학의 저변은 생각보다 넓고 튼튼했다. 그 길로 울산산업문화축제에 참가했고, 자연스럽게 문학동인들과 교류가 이어졌다. 그로부터 새로운 동기와 자극을 부여 받았다. 차곡차곡 쌓이는 영감에 개인 시간은 점점 창작에 매몰됐다. 집중 끝에 2013년 등대문학상 공모전에서 수상하고, 이듬해 서정문학을 통해 시 부문에 당선돼 등단했다.

사유의 즐거움

처음부터 디카시에 천착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동인들은 내게 어울리는 장르로 디카시를 꼽았다. 나 역시 시를 자아낼수록 관심 방향이 디카시로 수렴됐다. 이런 편향은 청소년 때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언제나 쉬운 글이 좋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쉬운 글은 맞고, 어려운 글은 틀리다'는 관념이 머릿속 깊숙이 자리한다. 무엇보다 쉽게 읽히는 글은 쓰기 어렵다는 것을 안다. 간단하되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직관적으로 공명을 일으키는 디카시는 더욱 만나기 힘들다.

2017년 황순원문학제 일환의 디카시 공모전에서 수상한 지 3년 만에 책이 나왔다. 표제 <길 위에서 철학을 하다>는 그간의 시간을 곱씹어 함축한 결과다. 일이든, 생활이든, 그 속에서 나는 늘 길에 서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여러 생각들을 했다. 운이 좋았다. 꿈에 이르는 길에서 잠깐 벗어났지만 굴곡진 길을 걷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꿈에 그리던 길과 만났다. 다만 영원한 것은 없다. 당장 내일이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여러 후배들에게 '원한다면 무엇이든 일단 해보라' 권하는 이유다. 디카시도 그렇다. 사그라든 꿈을 현실로 다시 불러낸 것은 두 발로 나가 서서 관찰하고 의미 찾기를 그치지 않은 덕분이다.

내가 꿈에 다가가면 그다음 꿈은 내게 다가온다. 지역 언론에 디카시 평론을 기고하면서 선한 영향력에 대해 꿈꾸게 됐다. 인쇄된 디카시집이 돌고 돌아 긍정의 힘을 발휘하면 좋겠다. 지친 사람은 용기를 얻고, 좌절한 사람은 희망을 보는 디카시를 쓰고 싶다.

지친 사람은
용기를 얻고
좌절한 사람은
희망을 보는

디카시를 쓰고 싶다

시 창작 정보상자

ONLINE

한국디카시연구소
디카시 이해를 돕는 이론 정보와 다양한 작품,
공모전 소식을 전하는 디카시 전문 연구기관이다.
한국디카시연구소KDI 유튜브 채널을 통해
디카시 강좌를 진행 중이다.
www.dicapoem.net

BOOK

<길 위에서 철학을 하다>
창연출판사·2019
박동환 사우의 첫 단독 시집으로 <밥줄>,
<아버지의 그림자>, <말조심>, <가는 날이 장날> 등
순간을 참신하게 포착한 총 74편의 시가 수록됐다.

<시 창작을 위한 레시피>
도서출판 울력·2014
시 입문자를 위한 길잡이 서적이다. 크게 창작 입문
단계와 심화 단계로 나뉘어 요리 레시피처럼
실제적인 결과물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장 속으로

사우디아람코 공동 아시아태평양석유회의 리셉션 — 싱가포르지사 이전 설치

글. 최기진(싱가포르지사)

세계 시장 속 명성 높이는 리셉션 현장

아시아태평양석유회의(9월 9~11일, 이하 APPEC)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우리회사와 사우디아람코가 공동으로 리셉션을 개최했다. 9월 10일 플러턴베이 호텔에 마련된 이번 리셉션 현장에는 고객과 업계 관계자 약 1천7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서 후세인 알 카타니 CEO와 박봉수 사장, 안종범 수석부사장 등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은 사우디아람코 임직원과 함께 주최측으로서 방문객들을 맞이했다. 아울러 고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세계 시장 속에 우리회사의 명성을 한층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세계 최대 오일 허브인 싱가포르에서 해마다 열리는 AP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석유산업 행사다. 우리회사는 그동안 APPEC 기간에 맞춰 리셉션을 진행해 업계를 이끄는 고객과 관계자들을 긴밀하게 교류해 왔다. 이를 통해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살피는 한편 대면소통으로 우리 제품의 앞선 경쟁력을 알리는 데 효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우디아람코와 협력해 리셉션을 개최함으로써 마케팅 강화는 물론 우리회사의 명성을 제고하는 좋은 계기로 삼고 있다.

알 카타니 CEO을 비롯한 경영진은 리셉션 개최를 전후로 많은 고객사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브리티시페트롤륨(BP), 페트로차이나(PetroChina) 등 상호 신뢰로 지속적인 사업 교류를 이어가고 있는 고객사의 관계자들은 업계의 풍부한 정보 순환이 이뤄지는 콘퍼런스 기간 중 우리 경영진과 만나는 기회를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싱가포르지사 이전으로 아람코와 시너지 극대화

이보다 앞서 9월 9일에는 싱가포르지사 사무소 이전 설치에 즈음해 각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우리 경영진은 새 공간에 둥지를 튼 지사를 방문해 현지 임직원을 격려했다. 최근 싱가포르지사는 아람코아시아싱가포르(AAS)·아람코트레이딩싱가포르(ATS) 등 싱가포르 소재 아람코 자회사들이 모여 있는 건물 내 같은 층에 입주했다. 물리적 거리를 좁혀 긴밀한 협력을 이루고, 이로써 최상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조치다.

경영진은 싱가포르지사에 도착해 구성원과 만난 자리에서 격려와 감사의 뜻을 나눈 뒤 테이프커팅과 함께 새 업무공간에 발을 디뎠다. 양현준 지사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은 세심하게 단장한 곳곳을 소개한 뒤 다채롭고 고운 색의 무지개떡을 대접하며 성공을 향한 염원을 표했다.

알 카타니 CEO는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손을 맞잡고 노고를 치하했다. 고객 최접점에서 시장의 격변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지사의 사명을 통해 회사 전체의 성장을 목표로 활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양 지사장은 모든 감각을 열어 시장의 빠른 변화를 읽어내고 구성원의 역량과 의지로 새 기회에 적극 도전한다는 각오를 밝혀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APPEC 현장에서 사우디아람코와 공동으로 펼친 리셉션과 우리 경영진의 국외 사무소 방문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과의 오찬·회의 등 적극적인 활동들은 싱가포르지사를 거점으로 한 광폭의 글로벌 마케팅 전개에 커다란 동기를 불어넣었다. 앞으로 국제무대의 더 많은 행사를 통해 우리회사의 이름이 빛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번영 이끄는 에너지의 미래

세계에너지총회 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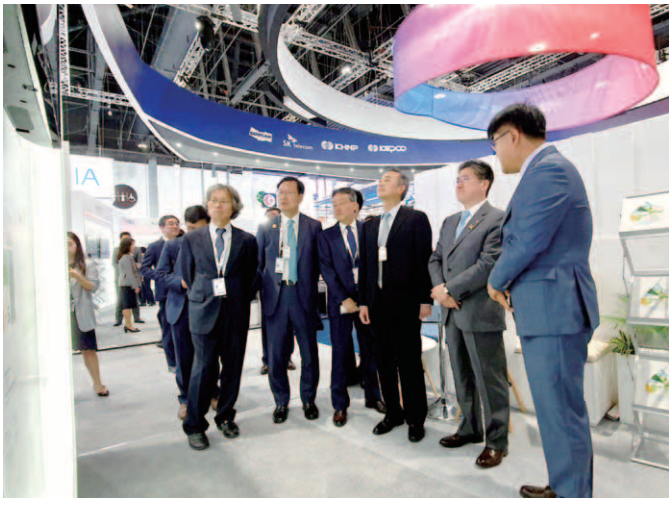
글. 이정연(업무팀)

전 세계 에너지 전문가 총집결

우리회사가 9월 9~12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24차 세계에너지총회(World Energy Congress, 이하 WEC)에 참가했다. WEC는 전 세계 150여 개국의 참가 아래 에너지 장차관급 인사, 국제기구 사무총장 등 정책 입안자와 에너지 기업 CEO를 비롯한 업계 전문가들이 총집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에너지 국제행사다.

3년 주기로 개최되는 이 기회를 통해 참가자들은 주제발표와 토론, 전시관 운영, 기업 상담 등으로 세계 에너지 산업 발전의 균형과 혁신을 모색한다. 특히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은 저마다 추진 중인 에너지 관련 서비스와 기술 연구개발 현황, 에너지 발전상 등을 다채롭게 펼쳐 보인다.

올해 WEC는 '번영을 위한 에너지'를 주제로 내걸고 에너지 삼중고(Trilemma) 해결을 위한 정책 지원과 규제 개혁, 투자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에너지 삼중고는 전 인류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를 에너지안보·에너지형평성·환경지속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이로써 국가별 실현 정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WEC를 총회를 주관하는 세계에너지협의회는 2011년부터 해마다 세계 에너지 삼중고 지수 보고서를 발표해 각국의 에너지 지표 순위를 견준다.



세계에 알리는 도전적 프로젝트

이번 총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규모의 전시관을 개설한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신임 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압둘아지즈 빈 살만 알 사우디 왕자(HRH Prince Abdulaziz Bin Salman Al Saud, Minister of Energy, Saudi Arabia)와 사우디아람코의 아민 H. 나세르 사장&CEO (Amin H. Nasser, President and Chief Executive Officer, Saudi Aramco)등이 연사로 참가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 국제에너지기구(IEA)·석유수출국기구(OPEC) 사무총장 등 총 9명 패널이 동참한 아시아에너지장관회의의 토론에서 '경쟁력 있고 생산적인 에너지믹스를 위한 신기술의 역할'을 주제로 논의했다.

우리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WEC한국위원회의 주도 아래 에너지 관련 국내기업들(공기업 4개사, 대기업 5개사, 중소기업 16개사)과 한국관을 구성하고 다양한 참가자들과 소통했다. 특히 3m의 전시벽면에 42인치 PDP스크린을 내걸어 홍보영화와 준공식 영상을 송출하고, 그래픽월을 통해 회사 개요와 RUC·ODC프로젝트, SC&D프로젝트 등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다. 이 가운데 압둘아지즈 빈 살만 사우디 왕자와 정승일 산업부차관, 세이크 하자르(Sheikh Hazza) 아랍에미리트 안보보좌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한국관을 방문했다.

이번 WEC 참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에너지·화학 기업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고, RUC·ODC프로젝트의 성공과 새 프로젝트의 도전적인 추진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

견고한 신뢰 성장의 약속

이데미츠사 윤활사업 협력 30주년

글. 김현석(기유마케팅팀)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는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목표한 도전의 길은 험난하다. 사업을 둘러싼 첨예한 요건들을 빈틈없이 갖추고 혹독한 견제와 예측 불가능한 난관을 이겨내야 한다. 이 가운데 우리회사가 올해 이데미츠사와 윤활사업 협력 3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9월 19~21일 서울과 울산에서 진행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각사 저마다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을 넘어서서 진정 어린 신뢰와 정직한 소통, 헌신적인 지원이 만든 의미 있는 기록이다. 양사 임직원은 지나온 시간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면서 서로에게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첫날 일정은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진행됐다. 배중호 전무(글로벌사업본부장)와 강기태 전무(윤활영업부문장)를 비롯한 우리 임직원은 요코무라 SEO를 포함한 이데미츠사 대표단을 환대하고, 만찬을 겸한 기념식으로 30주년을 축하했다. 이 자리에서 배 전무는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을 인용해 "사업 환경의 우여곡절 속에 30년 동안 지속된 협력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며, 오랜 기간 양사의 성공적인 협력의 결실로서 오늘에 이른 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 또한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맞이한 이번 30주년을 기점으로 양사가 한층 더 견고한 관계강화를 이뤄 또 다른 성공을 함께 실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튿날 온산공장으로 이동한 양사 임직원은 홍보관·홍보영상 등을 통해 우리 공장의 역사와 운영 현황 등을 접했다. 이데미츠 대표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과 운영에 대해 찬사를 전했다. 뒤이어 공장 투어에 나서 안정 가동이 이뤄지고 있는 생산 현장을 살펴보면서 격의 없이 의견을 나눴다.

우리회사는 1989년 이후 이데미츠사와의 기술협력과 더불어 윤활유 사업의 성장사를 거듭 써왔다. 2008년 이데미츠에 그룹 III 윤활기유 공급을 시작한 이래 현재는 이데미츠의 그룹 III 윤활기유 최대 공급사로서 자리매김해 상호 성장을 이끌고 있다.

무재해 안전 결의

하반기 정기보수·점검 특별 안전결의대회

글. 박정호(안전대응팀)

무재해 사업장을 향한 우리의 노력이 전방위로 지속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9월 20일 온산공장 신본관 대강당에서 하반기 정기보수·점검(T&I) 특별 안전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우리회사와 협력업체 임직원이 안전 실천을 다짐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해 없는 정비보수 완수 의지를 다지기 위한 자리다. 현장에는 우리 임직원 100여 명과 협력업체 대표와 현장 소장, 안전담당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를 뿜었다.

식전행사로 협력업체가 제작한 우수 안전 활동 동영상이 상영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한데 모았다. 뒤이어 주요 식순에 따라 안전 결의문 선서와 안전다짐 서명식, 무재해 결의 이벤트 등이 진행됐다. 이 가운데 안전다짐 서명식 순서에는 협력업체(원일·포스코컴텍·유한티유·대신·휴엔텍·동일산업) 대표와 이영백 부사장을 비롯한 우리 임원들이 서명에 동참해 안전을 향한 굳은 결의를 표했다. 또한 무재해 깃발을 휘날리는 이벤트로 안전을 향한 결기를 펼쳐 보였다. 결의대회는 "실천하자, 안전행동! 준수하자, 안전규정! 달성하자, 무재해!" 구호를 한목소리로 외치며 마무리됐다.

주요 식순 뒤 우리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자는 간담회로 안전 수호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대강당에서는 정기보수·점검 안전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3시간여 동안 정기보수·점검 공정 운전 특기사항, 작업위험성 평가 결과, 밀폐공장 작업 특별안전 조치사항 등을 숙지했다.

이번 대회는 우리회사와 협력업체가 안전을 화두로 다시 한번 뜻을 모으는 한편, 정기보수·점검 관련 부서 담당자와 안전담당자가 한자리에서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안전을 향한 모두의 결의가 무재해 사업장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으로 믿는다.

국경 넘은 배움 열정

과학문화재단 한-아랍 청년교류 프로그램

글. 강영옥(CSR/운영지원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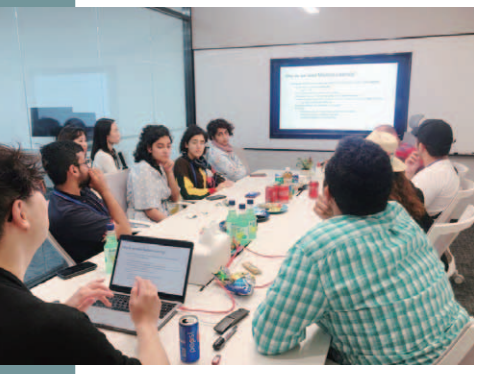
우리 과학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재)한국-아랍소사이어티가 주관하는 한국-아랍 청년교류 프로그램이 8월 31일~9월 7일 일정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과학문화재단은 주요 사업 중 하나로 한국-아랍 청년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아랍지역 주요국 대학생들을 초청하거나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아랍지역 국가 방문을 추진함으로써 상호간 문화교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사우디 과학기술 분야 연구중심대학인 카우스트(KAUST, King Abdullah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대학생 8명을 초청했다. 사우디 국적의 이들 대학생은 카우스트 영재 프로그램(KGSP, KAUST Gifted Student Program)을 통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과학 영재들이다.

올해 프로그램은 현재와 미래 사회, 역사와 문화, 과학과 기술 등의 경험 기회를 포함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를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한 사우디 대학생들은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대학교 등을 방문해 비슷한 분야에서 수학하고 있는 이국의 또래들과 만났다. 이어 분단국의 현실이 서린 비무장지대와 역사박물관, 경주 문화 유적 등을 살펴보면서 한국의 역사를 이해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관련 주요 기업체인 카카오와 안랩을 방문해 첨단기술이 이끄는 오늘날의 한국을 목격하는 한편,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 주목을 받고 있는 보이저엑스 등을 방문해 미래 한국의 새로운 가능성도 살폈다.

일주일이라는 다소 빡빡하게 일정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학생들은 과학 영재답게 각 프로그램 현장에서 무수한 질문을 쏟아내면서 큰 관심을 표출했다. 모든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에서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간 한층 더 깊은 이해와 우정을 기대하면서 미래 협력의 희망도 엿볼 수 있었다.

사우디 학생들은 태풍으로 인한 악천후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우리 관계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들이 큰 재목으로 성장해 전 세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가기를 기대하며, 그 성장 과정에 과학문화재단과 함께한 시간들이 의미 있는 경험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



기량과 전략의 환상궁합

본사·공장 족구동호회 대회 참가기

글. 최철웅(직영네트워크관리팀)

본사·공장 족구동호회가 합동으로 9월 8일 서울 망원유수지 체육공원에서 시행된 제18회 마포구청장기족구대회에 참가해 관내2부 우승을 차지했다.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해 대회 전날 예정된 본사·공장 족구동호회의 교류전은 비록 취소됐지만 단합을 다지는 풍성한 저녁 식사 자리로 아쉬움을 달랬다.

대회당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회사의 명예를 걸고 즐겁게 경기에 임했다. 공격수 조성은(장치1과)의 폭발적인 공격, 세터 송영석(장치2과)의 절묘한 토스, 좌수비 정필규(기계기술팀), 우수비 신대광(기계2과)의 완벽한 수비, 최철웅 후보 선수의 열정적인 응원과 조병호(직영네트워크관리팀) 감독의 정곡을 찌르는 전략이 찰떡궁합을 이뤘다. 환상적인 팀워크로 얻은 우승의 영예는 모두에게 벅찬 감동을 안겼다. 우리회사의 명예를 걸고 페어플레이를 펼치며 열심히 경기에 임한 모든 선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는 본사와 공장 족구동호회의 친목도모에 이어 공장 족구동호회 최우수 선수들이 참가해 우승을 거머쥐게 돼 더욱 뜻 깊었다. 내년에는 관내1부 우승을 목표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며 다음 본사·공장 족구동호회의 정기 교류전을 기약했다.

1

순박한 섬나라 순수한 자연

페로제도 여행기

글. 박종진(총무보안팀)

TV 광고 속 환상의 섬

9월 집중휴가를 이용해 어머니와 함께 아이슬란드와 페로제도에 2주간 다녀왔다. 아이슬란드와 영국, 노르웨이의 중간에 위치한 페로제도는 덴마크령의 섬나라로 총 18개 화산섬으로 이뤄졌다. 면적은 제주도와 비슷하지만 인구가 5만2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천혜의 자연 관광을 만끽하기에 제격인 여행지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갤럭시노트8' 제품의 광고 촬영지로 알려진 이곳은 아이슬란드에 비해 관광객이 많지 않아 일반 숙박업소가 다른 관광지만큼 잘 갖춰지지 않았다. 고심 끝에 온라인 예약대행을 통해 숙소를 정했다. 우려와 달리 다행히 깨끗한 시설에 응대도 친절했다.

페로제도는 퍼핀(도요목 바다오리과의 조류)을 볼 수 있는 미키네스섬과 TV광고 촬영지인 가사달루르 그리고 쇠르보그스바튼 호수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는 일정의 여유가 있어 유명 관광지를 포함해 삭순, 칼소이섬, 클라르쿠 등 명소들도 둘러봤다.

태고 자연 숨 쉬는 가사달루르

페로제도 여행에서 필수인 렌터카를 받자마자 우리는 쇠르보그스바튼 호수로 향했다. 거친 바다와 평안한 호수가 절벽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듯한 기이한 형국을 하고 있는데 왕복 네 시간 트레킹 코스가 전혀 힘들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엄청난 높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울타리나 경계선

2

도 쳐져 있지 않은 절벽 끝에서 마주한 풍경은 거대한 대자연의 위용을 한껏 내뿜었다. 다음 날에는 페로제도에서 가장 유명한 장소인 가사달루르로 향했다. 회사 컴퓨터 모니터의 배경화면이기도 한 곳으로 향한다는 생각에 두근거리고 설레었다. 그렇게 도착한 가사달루르는 TV 광고에서 본 것과 정말 똑 같은 풍경이었다. 수많은 암석으로 이뤄진 산과 바로 밑 언덕에 자리 잡은 조그만 마을 그리고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가 함께 어우러져 마치 광고 속으로 들어온 듯했다. 그 아름다움에 매료된 어머니와 나는 페로제도에 머무는 동안 가사달루르만 세 번 방문했다.

한편 페로제도의 독특한 주거 양식과 음식 문화도 이색적인 경험이었다. 이곳은 1년 내내 비가 올 만큼 맑은 날이 적어 주택 대부분 잔디로 지붕을 덮어놓았는데 마치 안동 하회마을의 초가집 지붕을 보는 듯했다. 또한 사람 수보다 많은 양을 키우는 것도 흥미로웠다. 페로제도 여행 내내 온갖 길과 산에서 평생 볼 양들을 다 만난 것 같았다. 한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다양한 양고기 요리와 양 젖을 활용한 유제품도 여행의 별미였다.

아이슬란드에서 9박, 페로제도에서 5박을 하는 동안 북유럽의 비싼 물가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여행을 마치고 돌아보니 여행비용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값진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다. 무엇보다 어머니와 함께했기에 더욱 특별한 여정이었다. 개인적으로 아이슬란드보다 태고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페로제도가 인상 깊었다. 자연 경관과 트레킹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한다.

3

4

5

1 쿠노이섬이 바라다 보이는 클라루크 정상에서 한 컷
2 '갤럭시노트8' 광고에 등장하는 가사달루르의 비경
3 칼소이섬 내 명소 칼루어 등대 주변 풍광
4 페로제도에서 가장 오래된 마을 커크주베
5 페로제도에서 가장 큰 호수인 쇠르보그스바튼 인근의 보스달라포수르 폭포

향긋한 가을 산행

버섯 채취 사연

글. 김원섭(동력3과)

2

3

남 다른 취미 활동, 버섯 채취!

9월 19일 오전 일찍 서둘러 경북 청송으로 향했다. 10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차 세 대가 주차돼 있었다. 순간 다른 곳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됐다. 단순한 산행이 목적이라면 누가 먼저 오든 상관없지만 목적이 버섯 채취일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지금 시기에는 싸리버섯이나 밤버섯이 한창일 때라 '내가 채취할 버섯은 있겠지' 생각하며 애초 계획한 산행을 시작했다.

1

올해 비가 자주 내려 내심 기대를 했지만 막상 산에 오르니 풀이 바짝 마른 상태였다. 600m를 더 올라 구광자리(채심한 흔적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니 오매불망 찾아 헤맨 능이버섯을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저기서 군락을 이룬 능이버섯에 연신 "대박!"을 외쳤다. 대어를 낚은 듯했다. 금세 배낭 하나 가득 버섯을 채취했다. 능이백숙 일 년치는 요리할 수 있는 양이다. 이대로 하산할 것인지, 아니면 능선을 타고 한 바퀴 더 돌아볼지 갈등한 끝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정상까지 향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과한 욕심이었는지 체력만 소진하고 더 이상의 능이버섯은 찾을 수 없었다. 체념하는 마음으로 걸음을 옮기던 순간 송이버섯 세 송이가 눈에 띄었다. 올해 처음 수확하는 송이버섯이다. 흔히 사람들이 자연산 송이버섯을 최고로 꼽지만 나에게는 능이버섯이 단연코 일등이다. 맛과 향, 식감, 영양 면에서 능이버섯은 뛰어난 식재료다.

주차장으로 돌아와 배낭에서 능이버섯을 꺼내 박스에 담으려는 순간 먼저 하산한 사람들이 "우와~"하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팔 수 없냐는 부탁을 힘겹게 물리치고 가족들이 있는 대구로 향했다.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진 수확

어머니가 계신 대구 큰누이 집으로 가서 이날 딴 버섯들을 나눠드렸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식탁으로 오신 어머니는 버섯 구경에 신이 나셨다. 지금은 비록 연로하시지만 어릴 적 버섯 채취의 재미를 알게 해준 장본인이 어머니다. 그 시절에는 마대자루를 배낭 삼아 들고 산을 올랐는데 버섯을 많이 채취한 날은 한 번에 다 담을 수 없어 산을 몇 차례 오르내렸다. 추억을 되새기며 이날 딴 능이버섯 무침을 먹은 뒤, 다음날 산행 약속을 위해 일찍 잠을 청했다.

이튿날, 새벽 4시 30분 대구를 떠나 청송에

4

5

도착했다. 동행한 누나 부부, 형님과 팀을 나눠 어제 올랐던 곳 반대편인 개울 너머로 향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린 능이버섯은 구경도 못하고 싸리와 밤버섯만 땄다. 어제 산행 때문인지 금세 체력이 소진됐지만 능이버섯 채취의 손맛이 그리워 마지막으로 옆 골짜기로 옮겼다. 선택은 탁월했다. 얼마 뒤 첫 능이버섯을 발견했다. 매형은 능이를 직접 따본 게 처음이라며 아이처럼 기뻐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려오면서는 만가닥버섯 군락까지 발견했다. 하나가 원채 크다 보니 여섯 개를 땄는데도 비닐이 묵직하다. 이어 꽃 같은 모양에 향은 송이버섯 같은 꽃송이버섯 군락도 발견했다. 자연산 1㎏에 10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귀한 꽃송이버섯은 건조시킨 뒤 가루로 섭취하면 면역력 향상에 좋다.

배낭 가득 채워진 버섯 덕분에 하산하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주차장에서 재회한 형과 누나에게도 매형과 딴 만가닥버섯과 꽃송이버섯을 나눠준 뒤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아내에게 버섯 채취 무용담을 한 보따리 풀어놓은 뒤 소고기와 머리만한 능이버섯을 구워 친한 이웃과 푸짐한 저녁 만찬을 즐겼다. 연이은 산행으로 몸은 힘들었지만 풍성한 수확으로 마음은 활력이 넘쳤다. 지금도 온 집안에 향긋한 능이버섯 향이 진동한다.

6

1 얼굴만 한 크기의 자연산 버섯 들고 기념촬영
2-3 배낭 한가득 채취한 능이버섯과 꽃송이버섯
4-5 산속의 보물 자연산 송이버섯(위)과 만가닥버섯(아래)
6 채취한 버섯으로 차린 푸짐한 식탁

1

애틋한 추억 쌓기

어머니 동행 추석 이야기

글. 피준호(탈황1과)

어머니와 함께한 고향길

우리회사에서 근무한지도 만 23년이 넘어간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숨 가쁘기 그지없다. 3월 정기보수·점검을 마친 뒤 현장업무와 각종 감사 등을 하다보면 봄·여름이 훌쩍 지나가고 추석을 맞이한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 다음해 준비와 계획서를 작성하면 다시 정기보수·점검을 맞이하게 된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1년이다.

그 가운데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딱 세 번 있다. 현재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서울에 사는 둘째 누이가 모시고 있는데 항상 미안할 따름이다. 그래서 두 번의 큰 명절과 여름휴가 때는 어머니를 고향 상주로 모셔와 함께 지내고 다시 서울에 모셔다 드린다.

올해도 추석 근무를 마친 당일 서울로 향했다. 정차가 지속되는 고속도로 대신 국도를 택했다. 어머니께 피곤하면 주무시라고 말씀드려도 "우리 막둥이 운전하는 게 더 힘들지"라며 곁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신다. 덕분에 피곤할 틈 없이 새벽 1시 즈음 고향 상주에 도착했다. 어머니와 늦은 잠을 청하며 고단한 첫날을 마무리했다.

전날 피로가 심했는지 다음날 눈을 뜨니 오전 10시가 넘어갔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의 아침식사를 챙겨드린 뒤 보행기 힘을 빌려 함께 산책에 나섰다. 어머니는 "이 좋은 세상 몸이 불편하니 너무 야속하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요양원에서 배운 트로트 한 곡절을 뽑으며 산책을 즐기셨다. 그날 저녁은 곤드레 비빔밥에 청국장으로 푸짐한 저녁식사를 즐겼다.

2

3

4

1 경천대 폭포 앞에서 어머니와 기념 촬영
2 고향집 뒤뜰에 심은 어린 배나무
3 산책에 나선 어머니
4 서울역으로 마중 나온 조카들
5 경천대 동상 옆에서 촬영한 어머니 독사진

돈독한 가족애

추석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버지 산소에 성묘 다녀오니 작은 어머니가 추석음식을 챙겨주셔서 든든한 명절을 보낼 수 있었다. 오후에는 어머니와 상주에서 유명한 경청대로 향했다. 멀리서 보이는 인공폭포가 시원한 경치를 뽐내고 있었다. 우리는 나무그늘 아래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폭포수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왠지 모를 서글픔이 밀려왔다. 집에 돌아와 손자, 손녀들과 전화통화하며 밝은 웃음을 짓는 어머니를 보니 상념은 순간 사라졌다.

당초 연휴 마지막 날까지 상주에 있다 서울에 모시다 드리려 했는데 회사 일이 예정돼 있어 추석 이튿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울산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시장에 나가 호박잎과 상추 등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강된장 재료를 구입했다. 아내의 정성 어린 손맛으로 푸짐한 저녁식사를 가족들과 즐겼다. 오랜만에 호박잎을 먹는다는 어머니 말씀에 아내는 "어머니께 드리려고 직접 길렀다"며 농담을 던진다.

다음날 출근한 나를 대신해 아내가 어머니와 함께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업무를 모두 마치고 집에 오니 어머니는 "우리 막둥이 고생했다"며 다독여주신다. 순간 울컥하는 마음을 애써 다독이며 연휴 어머니와 마지막 밤을 보냈다. 다음날 아침, 엄마를 모시고 서울로 가기 위해 울산역으로 출발하는 순간 아내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우리 경화 고생했다"며 다정스레 아내 이름을 부르신다. 조금 더 잘해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밀려와 서울로 이동하는 2시간여가 짧기만 했다.

5

서울역에 도착하니 누나가 조카들을 데리고 마중나왔다. 매일같이 어머니를 돌보는 누나도 고맙지만 할머니를 기쁘게 맞이하는 조카들도 정말 고맙고 대견했다. 다같이 늦은 저녁식사를 간단히 먹은 뒤 다음을 기약하며 발길을 돌렸다. 어머니와의 6박7일이 내 인생에서 각별한 시간이었음은 틀림없다. 고향에 2년 전 심은 어린 배나무에 두 개의 과실이 달렸는데 이 나무가 건강히 자라 열매가 주렁주렁 달릴 때까지 어머니와 행복한 추억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

"엄마! 항상 죄송합니다. 누나도 많이 웃고 행복했으면 해요. 사랑합니다."

브라질, 베트남, 콜롬비아에 이은 세계 4위 커피 생산대국
인도네시아는 자바, 수마트라, 발리, 술라웨시, 보르네오를 포함해
1만7천500여 개 섬으로 이뤄진 거대한 커피제국이다.
다양한 풍미의 아라비카 고급 커피가 재배되는 산지들 가운데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휴양지 발리는
인도네시아 커피 체험 여행자에게 안성맞춤이다.

화산섬 따라 커피로드

인도네시아 발리 바리스타 여행

글·사진. 방정환
(<커피 한 잔 값으로 떠나는 인도네시아 카페 산책> 저자)

Travel Information

비행시간	약 7시간
시차	한국보다 1시간 느림
화폐	루피아, IDR (1루피아 ≒ 0.08원)
교통수단	택시, 오토바이, 미니 버스 등

여행 정보 추천 사이트

▶ 인도네시아 관광청 사이트
www.tourismindonesia.com

▶ 발리 관광청 사이트
https://balitourismboard.or.id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박3일	2박3일	3박4일	4박5일	5박6일	6박8일	7박8일	8박9일	9박11일	10박12일	11박13일	12박13일
홍콩	일본	베트남	태국	몽골	스페인	핀란드	터키	쿠바	인도네시아	오스트리아	인도
딤섬수업	미술랭 탐방	크루즈 여행	요리수업	유목체험	축구관람	오로라 탐방	역사기행	올드카 여행	바리스타 수업	클래식 공연	명상기행

10박11일
인도네시아 발리 커피 체험 여행
추천 일정

발리는 4계절 내내 온화한 열대 기후를 보인다. 우기인 11~4월보다는 건기인 5~10월이 대체로 덜 습한 편이다.

DAY 1
항공편 이용 → 발리 도착 → 우붓 이동 → 호텔 투숙 뒤 휴식

DAY 2
우붓 시내 → 세니만 커피 → 우붓 왕궁 → 우붓 미술관

DAY 3
몽키 포레스트 → 폭포 → 발리 풀리나 → 계단식 논 투어

DAY 4
킨타마니 화산 지대 방문 & 커피 농장 투어

DAY 5
쿠타 이동 → 발리 바리스타 센터 방문 → 해안가 산책 & 해양 스포츠 체험

DAY 6, 7, 8, 9
발리 바리스타 센터 커피 교육 & 카페 탐방

DAY 10
자유 시간 뒤 귀국(기내 1박)

1

추천 Point

카페와 커피 농장, 바리스타 교육 시설이 한 곳에!

신들의 섬, 예술의 섬, 지상 최후의 낙원 등 발리를 묘사하는 다양한 수식어들이 있다.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Eat Pray Love)> 등 수많은 영화·드라마 촬영지로 사랑받아 온 이곳은 휴양지 외에 커피 산업으로도 명성이 높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 커피 산지들과는 달리 발리에는 카페와 커피 농장, 바리스타 교육 시설이 모여 있어는 것이 특징이다.

그중 예술인 마을로 잘 알려진 우붓은 개성 만점의 카페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우붓에서 차량으로 1시간가량 달리면 대규모 커피 농장들이 위치한 킨타마니 화산 지대를 만날 수 있다. 우붓에서 느 남쪽으로 더 내려와 바닷가 인접 쿠타로 이동하면 전문 바리스타 교육 기관과 매력적인 카페들을 두루 경험할 수 있다.

2

체험 Point

바리스타 교육

★ **발리 바리스타 센터**

Bali View Apartment, Jl. Nakula No.60, Legian, Kuta, Kabupaten Badung, Bali 80361, Indonesia

www.balibaristacentre.com

+62 821 46439130

쿠타 해변 인근에서 만날 수 있는 전문 바리스타 교육 기관이다. 커피 초보자들을 위한 'INTRODUCTION TO COFFEE COURSE'(총 3일 과정, 4시간/일), 커피 중급자들을 위한 'LATTE ART COURSE'(3시간), 카페 창업자들을 위한 'COFFEE APPRECIATION COURSE'(2시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어 또는 인도네시아어로 커피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입문 과정을 무난히 통과했다면 중급자를 위한 라떼 아트 코스를 수강해도 좋다.

여행 전 기억하세요!

Travel tip

1. 일정은 여유롭게

발리는 평화롭고 여유로운 섬이다. 현지인들은 물론 장기 체류하는 대다수 외국인들도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한다. 따라서 커피 체험 여행을 할 때도 빠듯하지 않게 일정을 소화하기를 권한다. 한국에서처럼 시간에 쫓겨 서두르기보다는 느긋하게 주위를 둘러보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현지인들과 얘기할 때는 같이 웃어주면 더욱 좋다.

2. 현지 종교·문화 존중

인도네시아는 전체 인구의 85% 가량인 2억2천여만 명이 무슬림(이슬람 신자)으로 추정되는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반면, 발리는 주민의 90% 이상이 힌두교도인 힌두교 지역이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무슬림들과 달리 힌두교도들은 소고기를 섭취하지 않는다. 유명 관광지인 만큼 소고기 요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현지인들에게 소고기를 권하는 것은 삼가는 게 좋다.

관광 Point

발리에서 맛보는 인도네시아 커피의 정수

★ 세니만 커피

Jl. Sri Wedari No.5, Banjar Taman Kelod, Kecamatan Ubud, Kabupaten Gianyar, Bali 80561, Indonesia
www.senimancoffee.com
+62 361 972085

'세니만(SENIMAN)'은 예술인을 뜻하는 인도네시아 말이다. 세니만 커피는 호주 출신의 남성 예술가가 오픈한 카페로, 우붓 중심가 근처 골목에 자리 잡은 명소다. 이른 오전부터 손님들이 몰려드는 이곳은 커피맛 외에도 버려진 물건으로 새로운 가치의 제품을 탄생시키는 '업사이클링(Up-cycling)' 인테리어를 통해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 발리 풀리나

Jl.Raya Pujung Kelod, Desa Sebatu, Tegallalang, Gianyar, Bali 80561, Indonesia
https://balipulina.com
+62 361 901728

자연과 커피, 그리고 발리 특유의 여유로움을 바탕으로 '농업형 관광(Agro Tourism)'을 실천해 온 카페다. 발리 특유의 이국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입구를 들어서면 미소를 머금은 종업원들이 커피 원두를 빻는 작업장 등을 거쳐 자연과 맞닿아 있는 테라스로 안내한다. 계단식 논과 울창한 나무가 어우러진 우붓의 자연에 취해 있으면 초콜릿 커피, 생강 커피, 레몬 차 등 여덟 가지 무료 시음용 커피와 차가 제공된다.

★ 킨타마니 커피 농장

킨타마니는 발리섬 북쪽에 위치한 평균 해발고도 1천500m의 서늘한 고원 지역이다. 지름 10㎞가 넘는 거대한 분화구가 있는 화산 지대로 커피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춘 것으로 평가 받는다. 소규모 커피 농장들이 대부분인 발리섬 남쪽과는 달리 대규모로 운영되는 커피 농장들이 발리 커피 문화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고 있다.

<킨타마니 지역 주요 커피 농장>

❶ 세가라 윈두 커피 농장(Segara Windhu Coffee Plantation)

Banjar Temen, Jl. Raya Kintamani, Manukaya, Tampaksiring, Kabupaten Gianyar, Bali 80552, Indonesia
+62 811 399460

❷ 아그로 산티 커피 농장(Agro Santi Coffee Plantation)

Jl. Raya Kintamani, Manukaya, Tampaksiring, Kabupaten Gianyar, Bali 80552, Indonesia
+62 821 44539307

3

4

바닷가에 인접해 매력적인 카페들이 들어서 있는 쿠타해변 1
개성 있는 카페들을 만날 수 있는 우붓 시내 2
예술가가 운영하는 발리의 명소 '카페 세니만' 3-4
자연과 어우러진 농업형 체험 카페 '발리 풀리나' 5

5

꺾임 없는 강인한 생명력

성주 경산리 성밖숲

글·사진. 전부순

생(生)-생명의 공간, 활(活)-활기 넘치는 삶의 터전, 사(死)-평온의 안식처로 이름 난 경북 성주(星州)는 '별고을'답게 선비와 유림의 고장이라는 자부심과 더불어 역사·문화·신앙·자연이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다. 성주를 서쪽에서 들어가면 이천 변을 따라 왕버들 55그루로 구성된 숲이 넉넉하게 이어진다. 나무들 위용이 하천에 반영되고 강태공 모습과 겹치면서 멋진 풍광이 연출되는 곳, 바로 성주 성밖숲이다.

마을을 굽어 살피는 왕버들 군락

1894년 동학농민혁명 때 성문과 성곽은 불타 사라졌고,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성벽까지 모두 철거돼 사라졌으나 다행히 숲은 살아남았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 만든 비보림은 오롯이 성주 역사를 품은 대표 관광지로서 매년 성주생명문화축제가 여기서 열린다.

1999년 천연기념물 제403호로 지정·보호하는 성밖숲은 성주 옛 읍지 '경산지'와 '성산지'에 기록을 남겼다. 내용에 따르면 조선 중기 성밖 마을에서 이유 없이 아이들이 빈번히 죽어나갔다. 이에 한 지관이 이르기를 "마을에 있는 족두리바위와 탕건바위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 재앙이 생기므로 이를 막으려면 두 바위 중간인 이곳 이천 변에 밤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라"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숲을 조성하니 우환이 사라졌다. 그러나 임진왜란이 끝나면서 마을 기강이 해이하고 민심까지 뒤숭숭해지자 밤나무를 베어 내고 그 자리에 왕버들을 심은 것이 지금에 이르렀다.

2017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공존상'을 수상한 왕버들 군락은 여느 천연기념물과 달리 출입이 금지된 곳이 아닌 삶과 문화가 깊이 결합된 열린 공간으로 가치를 펼친다. 숲을 들어서면 제1호 번호표를 달고 있는 멋진 왕버들이 광장에 서서 길손을 맞는다. 숲과 숲을 연결하는 산책로는 군민들 발길이 부산하게 이어지고, 내 건너편에서는 게이트볼을 즐기는 어르신들의 밝은 목소리가 시공을 가른다. 왕버들의 나이는 300~500년 정도다. 나무의 가슴높이 둘레는 1.84~5.97m, 높이는 6.3~16.7m에 달해 비보임수이자 하천범람을 막는 수행방비림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버드나무는 한자로 양(楊)과 류(柳)를 혼용해 쓴다. 버드나무가 자라는 곳은 반드시 물이 있고 땅은 비옥해 농사에도 안성맞춤이다. 지명에 버드나무 양(楊)자가 들어간 경기도 양주·양평, 강원도 양구는 지금도 사람살기 좋은 땅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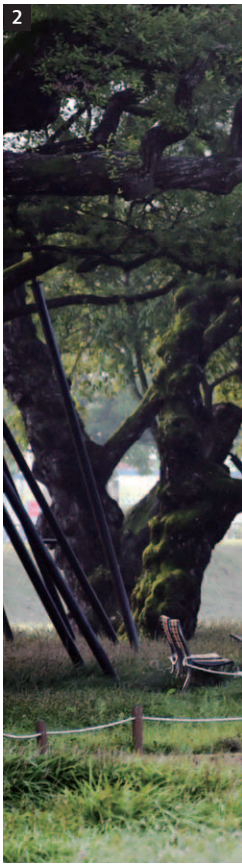
전 세계에서 600여 종으로 확인되는 버들은 주로 북반구 온대와 한대지역에 분포한다. 극한 환경에도 강해 툰드라나 고산지역, 심지어 소금평원에서 사는 종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40여 종 버드나뭇과 식물이 습지·산지, 계곡·고산능선에서 자란다. 이 중 줄기가 굵고 오래 살아 '왕'자를 붙인 왕버들만 천연기념물로 삼았다. 오래된 왕버들나무는 줄기가 썩어 큰 구멍이 생겨 저녁때면 여기서 종종 불이 비치고, 비 오는 밤이면 더욱 빛난다. 목재 안에 있는 인(P) 성분이 날아다닌 탓에 조상들은 이를 '귀신불'이라 불렀고, 한자로는 귀류(鬼柳)로 썼다. 위기도 몇 번 있었다. 양잠업이 유행처럼 번졌던 시절, 왕버들을 베어내고 대신 뽕나무 밭을 만들려 했다. 그러나 숲을 살리려는

Travel Information

<성주 경산리 성밖숲>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리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 8

1


2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마을숲 가치와 기능을 설파해 이를 가까스로 모면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길손에게 색다른 쉼터를 제공하는 성밖숲을 자분자분 걷다 보면 왕버들이 하나같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서있다. 수많은 환란과 전쟁 그리고 우리 근현대사의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버티고 살아남은 탓일까. 오래된 존재들이 뻗은 꿋꿋한 가지가 짙은 그늘을 드리워 가을 한 낮 따가운 햇볕을 식혀준다.

생명 시작되고
살아 숨 쉬는 태실 솔숲

조선 왕실은 자손을 출산하면 그 태(胎)를 항아리에 담아 명당자리에 봉안해 왕권 안정과 번영을 기원했다. 바로 태실(胎室)이다. 성주에는 태종태실(용암면 봉산), 세종대왕자태실(월항면 인촌리), 단종태실(가천면 범림산) 등 세 곳이 있다. 왕버들 군락과 함께 추천할만한 성주의 명소다.

세종대왕자태실은 가장 많은 왕자 태실 19기를 한곳에 봉안한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태실을 오르는 돌계단 주변은 소나무 300여 그루가 숲을 이룬다. 정상에는 앞줄 11기, 뒷줄 8기 태실이 태비(胎碑)와 함께 두 줄로 늘어서 있다. 곱돌솥 모양 지붕돌로 덮여 있지만, 정치적 입장과 처신에 따라 각각 다르다.

신라시대 의상이 창건한 선석사는 태실을 지키는 절이다. 영조가 친필을 하사하면서 성주 고을은 성주목으로 승격됐다. 이런 위세 덕분에 38개 성씨가 성주를 본관으로 삼고 있다. 선석사 아래는 태실 역사를 보여주는 태실문화관과 산책로를 갖춘 생명문화공원이 조성됐다. 이곳을 오르내리는 길은 소나무가 줄지어 도열하고 있어 '생명나무 숲'이라 불린다. 생명이 시작되고 살아 숨 쉬는 숲, 솔 내음 맡으며 왕들의 발자취를 더듬다보면 시간을 초월해 생명의 고귀함을 느낄 수 있다.

3

4

1
성주 이천 변에 조성된 왕버들 군락(성곽숲)은 지세가 부족함을 돋우는 비보(裨補)와 좋지 않은 기운을 누르는 염승(厭勝) 성격을 띤 마을숲이다

2
왕버들은 물을 좋아해 부드럽다. 음양사상에서 물은 여성성인 음을 의미한다. 음은 양에 비해 약하지만 양인 쇠를 자를 만큼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주(喪主)는 버드나무나 오동나무로 만든 지팡이를 짚었다

3
태실을 오르내리는 길은 '생명나무 숲'이다. 300여 그루의 소나무가 도열해 솔내음 맡으며 생명의 고귀함을 느낄 수 있는 길이다

4
세종대왕자태실은 가장 많은 왕자 태실 19기를 한곳에 봉안한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앞줄 11기, 뒷줄 8기 태실이 태비(胎碑)와 함께 두 줄로 늘어서 있다

독일 심리학자 링겔만의 줄다리기 실험에서 유래한 링겔만 효과가 있다. 혼자 당길 때 힘이 100%라면 두 명이 당길 때는 93%, 세 명은 85%, 여덟 명은 심지어 49%의 힘만 작용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기대했던 1+1>2라는 시너지 효과와 반대로 오히려 개인의 노력이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조직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한 명의 슈퍼맨은 환상에 불과하다. 함께 나아가야 멀리 갈 수 있다.

한솥밥 유대감의 힘

단합력 기르기

글. 김용현(<나는 인정받는 팀장이고 싶다> 저자)

단합력 훈련 1. 조직 설계

조직은 늘 변화하는 유기체

조직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정체돼 있으면 몸 전체 순환이 잘 되지 않아 곳곳이 마비되면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조직에 변화를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조직을 개편하거나 재설계하는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시행 의도는 좋으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혼란과 반발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우선 팀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조직(팀)의 구조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 번째 복잡성(Complexity)은 팀 안에서 과업의 분화가 이뤄지는 정도로, 한 명이 일을 전담하지 않도록 꼭 정-부의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 두 번째 공식화(Formalization)는 팀 내 직무가 표준화된 정도를 말한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부터 전문적인 일을 포괄해 규칙·절차·체크리스트를 정리해야 한다. 세 번째 집권화(Centralization)는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의 집중 정도를 나타낸다. 상황에 따라 반대 개념인 분권화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팀 업무 구조도를 그려보면 조직의 개편방향을 알 수 있고 팀원 면담에도 유용한 자료가 된다.

팀 업무 구조도 그려보기

* 팀원들의 이름과 업무를 매트릭스로 기록하고, 다음 질문을 점검한다.

1. 팀 내 진행 업무가 잘 배분돼 있는가?
2. 유연한 업무처리를 위한 기준이 있는가?
3. 업무에 따른 인력 배치가 적절한가?
4. 팀 내 의사소통은 양방향으로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가?
5. 조직 개편을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000팀 팀장 1명>

업무구분	세부업무		담당자	기타 특이사항
기획(7) 파트장 1명 파트원 6명	A상품	·실적관리 ·유관부서와 업무 협조	·(정)김 과장 ·(부)박 대리	
	B상품	·실적관리 ·유관부서와 업무 협조	·(정)이 과장 ·(부)최 대리	
	기타			
운영(9) 파트장 1명 파트원 8명 파트원 8명	인사/교육	·채용 ·인력배치 ·현장직원 소양교육	·(정)유 과장 ·(부)강 대리	
	고객상담	·상담력 강화 ·상품 지식 강화 ·고객만족도 강화	·(정)조 과장 ·(부)정 대리	
	기타			

단합력 훈련 2. 갈등 관리

조기 진화가 필요한 갈등

조직 단합을 가로막는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조직 내 갈등이다. 구성원 간 의견 차이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보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를 넘어서는 갈등은 일의 진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분위기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적극적인 합의 조정이 필요하다. 만약 구성원 간에 서로 합의점을 찾기 힘들다면, 합리적인 판단으로 조정하되 리더의 조정 결과에 따르겠다는 다짐을 미리 받아둬야 한다. 또한 지금의 갈등 문제를 향후에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나중에 조정 합의를 번복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갈등관리에서 유념해야 할 점

1 갈등은 어느 상황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지한다.
2 사전에 충분한 합의점을 마련해 갈등을 미리 예방한다.
3 업무상 공적인 갈등과 사적인 갈등은 연결시키지 않는다.
4 갈등 문제의 결과는 투명하게 공유한다.

단합력 훈련 3. 팀워크 구축

협력은 충분한 인정에서 가능

조직 내 업무 방식을 보면 개인이 진행하는 업무는 열심이지만 협업해야 하는 업무는 등한시하거나 심지어 무임승차까지 하는 일도 발생한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불분명한 업무 정의, 지원 부족에 따른 좌절, 동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실망, 적은 보상에 대한 동기 저하 등이 있다. 원인이 해결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면, 직원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수립하는 작업에 함께 참여토록 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공정한 평가체계 마련을 위해 함께 협업하는 구성원들에게 다면평가를 받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평소 구성원의 사기를 높여주는 칭찬을 통해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대화 방법(예시)

1. 직원이 실수했을 때
(×) 왜 그딴 식으로 일을 처리한 거야?
(O)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나?

2. 누군가에게 직원을 소개할 때
(×)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친구입니다.
(O) 역량이 뛰어난 인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 직원을 질책할 때
(×) 대체 몇 번이나 말해야 알아들을 거야?
(O) 자네에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책도 하는 거라네.

[체력투자형] 취미 정보

사람들은 남과 다른 새롭고 신선한 취미를 소유할 때 소박한 만족감을 느낀다. 여기에 불을 지피듯 최근 다양한 종목의 레포츠 분야가 문턱을 낮춰 대중과 만나고 있다. 올림픽 효자종목부터 장소의 상식을 깬 실내 레포츠까지 가성비 뛰어난 취미활동을 살펴본다.

어른들의 놀이터

취미로 즐기는 올림픽 효자 종목 · 양궁

현대인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하듯 사격, 펜싱, 양궁 등 올림픽 종목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가벼운 차와 먹을거리를 즐기며 부담 없이 양궁을 체험할 수 있는 양궁 카페가 등장해 인기다. 혼자서도 즐길 수 있고 함께 대결도 펼칠 수 있어 오락적인 종목으로 손색없다.

양궁은 기본적으로 활과 화살, 암 가드로 구성돼 있다. 암 가드는 활시위로부터 손목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보호대며, 대·촉·깃으로 구성된 화살은 활시위에 꽂아 과녁판을 향해 쏘는 발사체다. 본체가 되는 활은 소재뿐 아니라 크기와 무게도 다양해 전문가에게 자신에게 맞는 규격을 추천받는 것이 좋다.

양궁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집중력 향상 외에도 상체 근력을 키우고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잡념 없이 오롯이 한 곳에 몰두하며 마음에 쉼을 줄 수 있는 운동이다.

● 도움 되는 정보

양궁 기본 동작

1 옆으로 서서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자세를 잡는다.
2 화살은 집게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으로 잡고 활시위를 당긴다. (이때 왼팔에서 오른쪽 어깨까지 일자가 되게 한다.)
3 당긴 활시위를 턱에 붙여 흔들림을 줄인다.
4 오른쪽 눈으로 초점을 맞추며 과녁을 조준한 뒤 활 조준대에 있는 빨간 점이 과녁 중앙 노란색에 겹치는 순간 쏜다.

대한양궁협회

양궁의 역사, 경기방법, 관련 대회 일정뿐 아니라 전국 양궁장 정보 등을 제공한다. 일반인 체험 가능한 양궁장은 별도 표기해놓았다.

홈페이지 www.archery.or.kr

놀이 운동의 새로운 강자 · 점핑피트니스

2001년 체코에서 개발된 점핑피트니스는 어릴 적 흔히 '방방'으로 불리던 트램펄린을 활용한 운동이다. 굳어진 상체를 풀어주며 하체에 힘을 강화해 전신에 작용한다. 2015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는 트램펄린 10분 점프가 30분 달리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대한체육회는 체중 감량 효과 높은 운동에 점핑피트니스를 1위로 채택했다. 한 시간 운동(체중 70㎏ 기준)으로 1천200㎉를 소모할 만큼 단시간 얻을 수 있는 운동효과가 크다.

특히 점핑피트니스의 최대 장점은 딱딱한 바닥에 닿는 충격이 없어 관절이나 무릎 등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점핑 동작을 통해 하체뿐 아니라 복부 근육도 만들 수 있으며 에너지를 소비량이 커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다. 자녀들과 함께 하는 가족 운동으로도 더할 나위 없다.

● 도움 되는 정보

대한점핑피트니스협회

국내에 처음 점핑피트니스를 선보인 곳으로 전국 300여 곳에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각 지역 체육회, 보건소, 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며 점핑스포츠 개발·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지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로 47
울산지부 울산시 북구 강동산하3로 17
홈페이지 http://kjfa.org

Horseback riding

동물과의 따뜻한 교감 · 승마

말과 교감하며 정서적·신체적 힐링을 누리는 승마는 말과 기승자가 교감하며 하나가 되는 특별한 운동이다. 승마를 통해 자신감과 용기를 얻으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협동심과 인내력을 기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는 일상에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는다.

몇 해 전부터는 승마가 고급 스포츠라는 인식을 벗고 대중 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각 지역 승마장에서 5세 이상 아이부터 성인 취미반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접근 문턱을 낮췄다. 1일 체험료만 지불한 뒤 적성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 가족 단위로 승마장을 찾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기 강습을 진행할 경우 개인 또는 소수 인원의 그룹 단위로 안전하게 진행된다.

승마는 학교 차원에서 특별활동 과목으로 채택하기도 하는 만큼 게임중독뿐 아니라 심신 재활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 무엇보다 비틀어진 체형과 자세를 바로잡아 신체 균형을 다지는 데도 탁월하다.

● 도움 되는 정보

울산 UEF승마파크

일반인 체험승마, 어린이승마 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소 울산시 북구 무룡로 681

홈페이지 http://horseridingus.itrocks.kr

언양자연체험장 포니랜드

승마체험을 비롯한 자연 속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족단위 관람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주소 울산시 울주구 언양읍 대암1길 153-29

홈페이지 www.언양자연체험장.kr

Surfing

사계절 파도 즐기기 · 실내서핑

지나간 여름이 아쉽기만 한 해양레포츠 마니아라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실내서핑을 추천한다. 말 그대로 파도를 재현한 실내 연습장에서 계절과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플로우보딩(flowboarding)으로도 불리는 실내서핑은 인공파도 위에서 즐기는 레포츠다. 쉴 새 없이 치는 파도 위에서 라이딩을 하고 기술을 선보일 수 있다. 독학으로는 어려운 분야인 만큼 전문가의 코치는 필수다. 강습처마다 숙련된 강사가 A부터 Z까지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자세히 가르쳐준다. 실내서핑장은 실제 파도치는 느낌을 연출하기 위해 1분에 11만3천ℓ의 물을 시속 27㎞ 속도로 분사한다. 빠른 물살 안에서 균형만 잡아도 절반은 성공이다. 입문자도 두 시간 정도 물과의 사투를 벌이다보면 보드 위에 서는 동작에 익숙해질 수 있다.

● 도움 되는 정보

플로하우스 서울

연중 저녁 9시까지 운영되며, 저녁 7~8시에는 직장인타임이 있다. 비오는 날 1+1 이벤트 등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104

홈페이지

www.flowhouseseoul.com

울산 진하서핑스쿨

연습이 실전이 되는 울산 대표 서핑 스쿨이다. 체온을 보호하는 동절기용 서핑복이 구비돼 있어 동절기에도 강습이 진행된다.

주소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69-22

홈페이지

www.jinhasurfingschool.com

2019년 이달의 활력평가

10월 탐구영역 [한글]

<이달의 활력평가>는 달마다 시의성 있는 인문·생활 정보 기반의 퀴즈를 시험지 형태로 제공합니다.
쉬어가는 찰나에 재미와 여유를 더할 퀴즈로 소소한 활력을 충전해 보세요. 정답과 해설은 오른쪽 면에 공개됩니다.

◈ 인문 ◈

아래 지문을 읽고 1~2번 문제의 정답을 고르시오.

> 1. [ ]는 1910년대 편찬된 최초의 현대적 우리말사전으로, 주시경 선생 등 언어학자들이 참여했으나 출판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초기 원고는 이후 2. [ ]로 넘어가 조선어 사전의 밑바탕이 됐다.

1. 올해 초 개봉한 아래 영화 제목과 동명인 이것은?

① 나랏말싸미
② 말모이
③ 명량
④ 고지전

2. 일제 강점기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 거국적으로 활동한 이 단체 이름은?

① 독립협회 ② 대한광복회
③ 한인애국단 ④ 조선어학회

3. 아래 사진은 서울 경복궁 앞 광화문 광장을 대표하는 세종대왕 동상이다. 왼손에 들려진 이 책은?

① 훈민정음 예의본
② 훈민정음 해례본
③ 직지심체요절
④ 동의보감

◈ 생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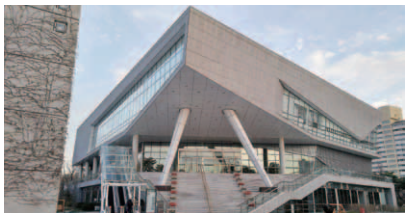
4. 유네스코가 문맹 퇴치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의 이름은?

① 훈민정음상 ② 자음과 모음상
③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 ④ 한글상

5. 일본식 잔재 용어가 아닌 것은?

① 게양 ② 두메산골 ③ 잉꼬부부 ④ 짬뽕

6. 국내외 관람객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체험하게 하는 공간으로 올해 개관 5주년을 맞은 이곳은?



① 국립한글박물관 ② 국립중앙박물관
③ 국립국어원 ④ 역사박물관

7. 국민이 참여하고 자유롭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온라인 국어사전의 이름은?

① 지식인 ② 우리말샘
③ 우리말 나들이 ④ 온라인가나다

2019년 이달의 활력평가

정답·해설

1. *자료 : 박문각

② 말모이

말모이는 '말모이 원고'라는 이름으로 2012년 등록문화재 제523호로 등록됐다. 240자 원고지 기준 153쪽 분량이며 표제어와 뜻풀이 모두 한글로 표기한 국어사의 귀중한 자료다.

2. *자료 : 한국사사전편찬회

④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는 1921년 우리말과 글을 연구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잡지 <한글>을 만들고 <조선어 사전> 편찬을 추진하며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적극적으로 맞섰다. 한인애국단(1931년 결성)과 대한광복회(1915년 결성)는 항일독립운동 단체다.

3. *자료 : 간송미술관

②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해례본은 1446년 세종대왕의 명으로 집현전 학자들이 간행한 책으로, 오랜 시간 자취를 감추었다가 1940년 안동에서 발견됐다. 한글 창제 시기와 원리 등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한편 훈민정음 예의본은 세종이 직접 지은 책으로 한글 창제 이유와 사용법을 간략히 설명한 글이다. 직지심체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금속 활자 인쇄 책이다.

4. *자료 : 한글글꼴용어사전

③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

세종대왕 문맹 퇴치상(King Sejong Literacy Prize)은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한 유네스코(UNESCO)에서 제정해 1990년부터 문맹 퇴치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 이름이다.

5. *자료 : 국립국어원

② 두메산골

두메산골은 '깊은 산골에 있는 땅'이라는 순우리말이다. '게양'→'닮'이나 '올림', '잉꼬부부'→'원앙부부'로 순화한다. '짬뽕'은 일본어 '잔폰'에서 유래했으나 우리말로 굳어진 단어로 순화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6. *자료 : 국립한글박물관

① 국립한글박물관

한글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14년 10월 9일 한글날 개관했다. 가족 체험을 위한 한글놀이터와 한글 폰트 검색 서비스인 '한글꼴큰사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개관 5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획전을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주소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0

홈페이지 www.hangeul.go.kr

7. *자료 : 국립국어원

② 우리말샘

우리말샘은 2016년 10월 문을 연 온라인 국어사전으로, 일반인 누구든지 사전 편집에 참여할 수 있다. 신조어·생활어·방언·전문용어를 포함해 <표준국어대사전>의 두 배 규모인 100만여 개 어휘를 등재했다. 일반 참여자들이 직접 어휘를 등록·편집하며 정보량을 계속 늘려가는 중으로 올해 8월 기준으로, 111만5천여 개의 표제어가 등록돼 있다.

홈페이지 https://opendict.korean.go.kr

<봄>
1482년
패널에 템페라
314x203㎝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순결한 유혹

흰색 물감 & 산드로 보티첼리 <봄>

미켈란젤로 <천지창조>,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 등 천상계와 지상계를 표현한 그림에서 창백한 연백색 물감을 볼 수 있다. 은은하게 빛나는 염기성탄산염을 포함해 납이 주성분인 연백색은 오래 전부터 백색 안료로 사용됐다. 하지만 납 분자 크기는 매우 작아 피부에 쉽게 흡수되기 쉬워 장기간 노출되면 중추 신경계통 질환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한다. 납의 위험이 밝혀지기 전까지 적지 않은 화가와 그의 도제들이 강력한 발암물질인 납 증기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됐다.

글.
이식(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전원경(예술의전당 인문아카데미 강사)

성경 벗어난 그림 속 주제

산드로 보티첼리의 <봄>은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손꼽힌다. 이 그림을 보는 이들은 보통 그림 제목인 봄이 계절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림 속 장면은 봄과 큰 관계가 없다. 여기서 화가가 그리고자 하는 봄은 바로 청춘, 인생의 봄이다.

그림은 가운데 비너스를 중심으로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뉜다. 왼편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연애의 시작이다. 비너스 머리 위에서 눈을 가린 큐피드가 어딘가로 막 화살을 날릴 참이다. 그 화살은 아마도 하늘거리는 흰색 의상을 입고 춤추는 미의 여신 세 명 중 가운데 여신에게 명중될 듯싶다. 그녀는 그림의 맨 왼편에서 오렌지를 따고 있는 전령의 신 헤르메스를 바라보고 있다. 큐피드의 화살을 맞는 순간 여신의 마음속에서 헤르메스에 대한 사랑이 피어난다.

연애의 장면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데에 비해 그림 오른편에 펼쳐진 결혼 장면은 조금 낯설다. 숲의 전령인 클로리스가 바람의 신 제피로스에게 납치당하는 장면이기 때문이다. 제피로스는 클로리스를 납치해 결혼하고 그녀를 꽃의 신 플로라로 승격시킨다. 클로리스 옆에 그려진 여성 즉 꽃무늬 드레스를 입고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미소를 짓고 있는 여성이 플로라다.

이 그림은 피렌체의 권력을 쥐고 있던 메디치가가 조카의 결혼 선물로 보티첼리에게 청탁한 작품이다. 당시 대부분의 귀족 자제들은 가문 간의 이해를 따진 정략결혼으로 맺어졌다. 보티첼리는 납치-결혼-여신 승격으로 이어지는 그림 오른편의 장면을 통해 '사랑과 행복한 결혼생활은 큰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을 등장시키기는 했지만 그림의 주제는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는 사연이다. 연애와 결혼이라는 주제는 중세 내내 그려진 성경 속 장면과는 완전히 다른, 인간의 이야기다. 이제 예술은 중세의 어둠을 넘어서서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인문주의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순수함에 감춰진 치명적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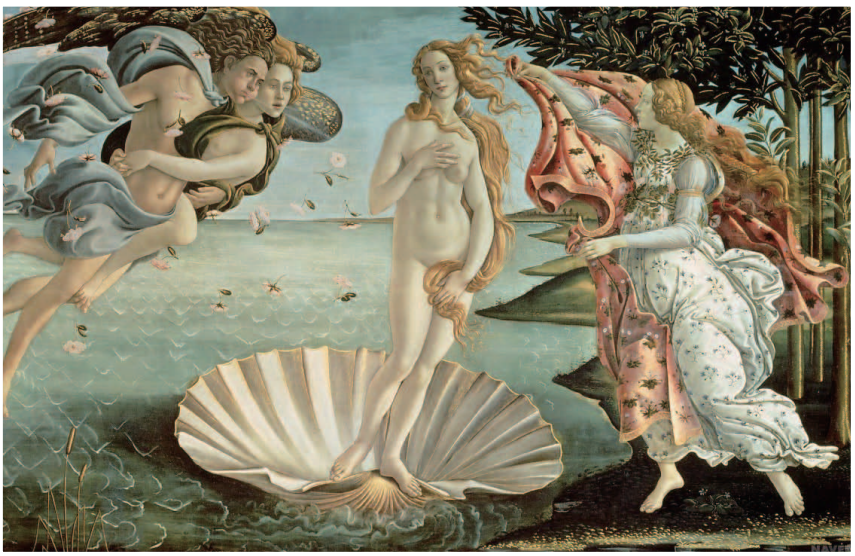
15세기는 르네상스가 시작된 시기일 뿐만 아니라 그림의 재료에서도 현격한 변화가 일어난 때였다. 14세기 중반 플랑드르 지역 화가들이 개발한 새로운 유화 물감이 점차 보급돼 많은 화가들이 안료 가루에 아마씨유나 호두기름 등을 섞어 바르는 유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이전 화가들은 보통 안료 가루를 계란 노른자에 섞어 만든 물갈음 사용한 템페라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템페라는 두껍게 그리기도 어려웠지만 한 번 그리면 수정도 불가능했다. 이러한 약점 때문에 유화는 15세기 들어 보편적인 물감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보티첼리는 <봄>을 그릴 때 굳이 템페라 물감을 사용했다. 인간의 피부 빛깔을 표현하는 데는 템페라가 더 낫다는 게 보티첼리의 생각이었다. 실제로 이 그림에 등장하는 여섯 명의 여신 중 네 명이 속이 훤히 비치는 하늘거리는 흰색 의상을 걸치고 있다. 보티첼리는 이 반투명한 흰색 의상 밑으로 여신들의 몸이 보이기를 원했고 그 때문에 굳이 사양세에 접어드던 템페라 물감을 고집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 외에 여성의 누드를 표현했다는 부분에서도 <봄>은 혁신적인 작품이었다.

18세기 중반, 가죽 주머니에 담긴 물감이 대량 생산되기 전까지 화가들은 자연 재료에서 추출한 가루로 직접 물감을 만들어 사용했다. 파란 물감의 원료인 라피스 라줄리(청금석)가 같은 양의 금보다 더 비쌌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파란색 말고도 물감의 재료들은 대부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붉은 물감은 코치닐이라고 불리는 선인장 기생 벌레의 가루로, 보라색 물감은 바다달팽이와 동물의 배설 점액으로 만들어졌다. 노란색은 황이나 꽃의 가루가 주재료였다. 물감을 만드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도 화가들은 도제를 고용한 공방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구하기 쉬운 물감색은 갈색, 회색, 흰색 등이었다. 갈색과 회색은 밤나무 등 나무 껍질과 뿌리를 갈아 만들었고 흰색은 납으로 만들었다. 얇게 자른 납을 동물의 분뇨를 넣은 항아리에 넣어 밀폐해 놓으면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탄산납이 만들어진다. 탄산납을 꺼내 빻은 후에 이 가루를 계란 노른자나 아마씨유 등에 섞어서 다시 갈면 흰색 물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문제는 다른 색과 달리 흰색 물감 재료인 납에는 독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납의 위험성은 19세기까지 거의 알려지지 않아 물감을 만들어 썼던 화가들은 물론, 납가루 분을 발라 얼굴을 창백해 보이게 만들었던 엘리자베스 1세 등 많은 여성들이 납중독 증세로 건강을 잃었다. 창백하고도 순수한 색깔인 흰색을 만드는 과정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일이 된 것이다.

<비너스의 탄생>
1444~1445년경·패널에 템페라
280x180㎝·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제약 없는 꿈을 향해

장애청소년 학습용 맞춤 보조기구 전달

불편한 신체 여건에도 최선을 다해 학업에 열중하는 저소득가정의 장애청소년을 위해 우리회사가 학습용 맞춤 보조기구를 지원했다.

9월 26일 본사 대강당에서 진행된 전달식을 통해 우리회사는 41명에게 1억 원 상당의 학습 보조기구를 전했다. 이 자리에는 류열 사장과 강인학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장을 비롯해 수혜 청소년과 보호자, 복지기관·센터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한 물품은 사용 학생의 장애 유형을 고려해 제작한 맞춤형 기구들로 전동 높낮이 조절 책상, 자세 보조 의자, 말하는 책 등이다. 이를 위해 전국의 보조공학서비스 기관들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을 추천 받고, 재활공학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

우리회사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손잡고 장애청소년들을 지원한 것은 지난 2010년부터다. 저소득가정 장애청소년들이 원활한 학습활동으로 학업능력을 향상하고 자존감을 높여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학습용 맞춤 보조기구를 지원해 왔다. 올해까지 10년 동안 총 564명의 장애청소년들에게 특수 제작된 보조기구를 전달해 실질적인 학습 개선효과와 사회참여를 목표한 자립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

류열 사장은 전달식에 참석한 수혜 대상 청소년들을 격려하면서 "아이들이 개인별로 꼭 필요한 학습용 보조기구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초기에 비해 현재의 고무적인 상황에 대해 환기하고, 전국에 흩어진 보조기구 관련 단체들이 장애청소년들을 찾아 각 장애 유형에 따른 실질적인 보조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고 있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에쓰-오일은 앞으로도 이 후원을 지속해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장애를 뛰어넘어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고 밝혔다.

S-OIL NEWS

OCTOBER 2019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In Collaboration with RobecoSAM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 10년 연속 '월드' 기업 편입

우리회사가 2019년 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이하 DJSI) 평가에서 10년 연속으로 DJSI 월드(World) 기업에 선정됐다. 오일가스(Oil & Gas) 산업 분야에서 10년 연속 DJSI 월드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정유사 중 우리회사가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다.

우리회사는 세계 수준의 경영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을 경영활동에 충실히 반영해온 끝에 2010년부터 10년 연속 DJSI 월드 기업 선정으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우리 전 임직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존경 받는 에너지·화학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비전2025를 중심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가능경영을 선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DJSI는 미국의 금융정보회사인 다우존스와 스위스 투자평가사인 로베코샘(RobecoSAM)이 전 세계 2천500여 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공급망 관리, 환경성과, 인적자본 개발, 사회공헌 등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세계적 권위의 평가지수다.

2019년 DJSI 월드 지수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천526개 글로벌 기업 중 12.6%에 해당되는 총 318개 기업이 편입됐으며, 국내 기업으로는 우리회사를 포함해 19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영업성과 우수지사 시상

국내영업본부가 올해 2분기 영업성과 우수지사를 선정하고 9월 5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이번 분기에는 용인·남양주·대전·구미지사가 성과 우수지사로 선정됐다. 아울러 울산지사가 성과 개선지사로 선정돼 함께 상을 받았다. 서정규 전무를 비롯한 국내영업본부 산하 임직원은 시상식을 마친 뒤 오찬을 함께하며 모두의 헌신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영업성과 우수지사 시상은 판매·유통망·수익성·회사정책기여도 등의 분기별 평가로 상위 4개 지사에 대해 이뤄지며, 전 분기 대비 영업성과 개선수준을 산정해 성과 개선지사를 가린다. 이들 성과 우수·개선지사에는 상패·포상금과 함께 국내영업본부장 명의의 격려 서신이 전달된다.

손끝으로 펼친 풍경

HYC공장봉사단 노인복지관 어르신 동행 샌드아트 체험

글. 피준호(탈황1과)

태풍이 무섭게 울산을 훑고 지나간 9월 23일 아침은 정말 맑고 쾌청했다. 봉사 참가자도 10여 명에 이름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회사가 지원하는 버스를 타고 울산중구노인복지관에 도착해 어르신들을 태웠다. 이날 목적지는 삼산로에 위치한 '모래요정샌드아트'다. 조명 빛을 뿜는 하얀 유리판 위에 모래를 흩뿌려 두고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려 이야기를 표현하는 예술활동을 위해서다. 10시 30분경 현장에 도착하니 미리 도착한 봉사단원들이 친절히 맞이해 준다. 어르신과 인사를 나누며 일대일로 짝을 지어 체험교실에 자리 잡았다. 한 팀을 이룬 봉사단과 어르신은 강사의 설명을 경청하며 모래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판을 휘저어 그림 그리는 게 언뜻 쉬워 보였지만 금세 형태가 사라지는 모래알의 역습에 초보 강습자들은 당황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이름도 적고 줄도 그어가면서 기본기를 다지다보니 어느새 손가락 움직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다. 내친 김에 달팽이 웃는 모습까지 그려봤다. 그렇게 연습을 마치자 오늘의 미션인 작품이 공개됐다. 화창한 날씨의 시골 풍경이 주제다.

어르신과 봉사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선 긋기로 어엿한 배경을 만들었다. 주먹으로 산을 표현하고, 모래를 정리해 가면서 산세를 아름답게 다듬었다. 엄지를 이용해 집 모양을 내고 오솔길도 그렸다. 모래를 오르락내리락 뿌리면서 나무를 만들고 나뭇잎에 꽃도 달았다. 시골 마을에 운치 있게 서있는 거목과 오솔길 옆에 사과나무도 더했다. 마지막으로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를 그려 넣으니 작품이 완성됐다. 어르신들은 선생님 그린 것보다 못해도 봉사자와 함께 그린 작품이 낫다며 흡족해 하셨고, 이런 체험을 또 해보고 싶다며 큰 호응을 보이셨다. 이날 교대D조 봉사단원 중에는 오프 근무임에도 불구하고 동참한 이들이 많았다. 봉사 현장에서 하나로 뭉친 마음이 근무현장에서도 끈끈한 단합력으로 이어져 안전사고 없는 나날이 지속되리라 믿는다.

네 박자 엔도르핀

문화예술&나눔 캠페인 공연 장윤정 <나눔음악회>

글. 강영옥(CSR/운영지원팀)

9월 25일 본사 대강당에서 문화예술&나눔 공연으로 <장윤정 나눔음악회>가 열렸다. 트로트 향유관객의 세대 파괴를 이끈 장본인으로서 폭넓은 팬층을 지니고 있는 가수의 무료 콘서트 소식에 사전신청을 통한 무료 배부 티켓은 일찌감치 소진됐다. 고교생 신분으로 강변강요제에 출전하며 가요계에 데뷔한 가수 장윤정은 5년 뒤인 2004년, 공전의 흥행곡 <어머나>로 음악 프로그램 1위를 석권해 실력파 트로트 가수임을 인정받았다. 지금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트로트 장르의 한계를 넘어 모든 연령층의 취향을 사로잡고 있다.

그녀는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문화예술&나눔 공연 무대에 기꺼이 올라 관객과 공감하고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공연에서는 <꽃>, <초혼>, <사랑아>, <짠짜라>, <어부바>, <올래>, <콩깍지> 등 여러 히트곡과 함께 신곡을 선보였다. 아울러 구수한 입담으로 관객 호응을 능숙하게 이끌어냈다. 특히 흥겨운 곡들이 연주될 때마다 관객들 모두 소리 높여 열창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분위기가 조성됐다.

우리회사는 문화예술을 통해 나눔 가치를 실천하고자 본사 신사옥에 입주한 2011년 6월에 문화나눔 네트워크 '시루'와 협약을 맺고 문화예술&나눔 캠페인을 시행한 이래 무료공연을 이어왔다. 공연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에 본사 사옥 대강당 또는 로비에서 진행되며, 가족 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음악을 비롯해 연극, 뮤지컬, 국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무대에 오른다.

한 땀 한 땀 사랑 매듭

생산지원부문봉사단 어르신 수예 활동 보조

글. 김순창(총무보안팀)

우리 봉사단은 문수실버복지관을 정기적으로 찾아가 어르신의 여가를 돕고 있다. 다양한 활동은 어르신의 몸과 마음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북돋아 노후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8월 24일 여가 소재는 수예다. 손바느질로 발 매트를 만들기로 했다. 요즘 손바느질을 경험할 기회가 드물어 봉사단은 조금 걱정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기우였다. 봉사단이 어르신들로부터 한 수 배우는 시간이었다.

봉사단원들은 어르신 열다섯 분과 짝 지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에 자리를 잡았다. 복지사님 안내로 이날 수예 과정과 주의할 점을 숙지한 뒤 우리 봉사단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다. 김영배 사우(기획분석팀)와 이혜영 사우(생산구매팀)는 올해 상반기 문수실버복지관이 선정한 우수 봉사자다. 정학수 복지관장님은 이들을 비롯한 우리 봉사단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발 매트 만들기를 이끌어 주시는 강사님 설명에 맞춰 재료를 펼쳤다. 실과 바늘, 누빔 천으로 재단된 발 매트 커트지(cut sheet), 가장자리에 덧대어 마감하는 리넨 바이어스 등이다. 봉사자들이 바늘에 실부터 꿰어 어르신께 드렸다. 신중한 손바느질이 시작됐다. 커트지에 바이어스를 빙 둘러가며 박음질 하시는 모습이 어쩐지 행복해 보였다. 우리는 어르신들께 "옛 솜씨가 나옵니다!"라고 감탄하자 어르신은 "박음질이 처음인데 끝까지 해보고 싶다"시며 의욕을 불태우셨다. 또 다른 어르신은 "소싯적에는 곧잘 했는데 이젠 눈이 나빠 잘 뵈지도 않고 손도 떨려서 힘들다"며 고개를 흔드셨다.

추억을 떠올리며 집중한 손바느질을 마치고 복지관 인근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푸짐한 보쌈으로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드렸다. 복지관으로 돌아와 완성된 발 매트를 두고 이야기꽃이 피었다. 어엿한 수예품에 성취감이 차오른다. 어르신과 사랑과 행복을 나눈 보람된 시간이었다.

임직원 동정

OCTOBER
2019

S-OIL

보직변경

09.23

박관우(4급.FCC2공정팀)·
김동엽(4급.안전혁신팀)→
프로젝트추진2팀

이기현(운전원.검사진단팀)→
인천저유소(운영담당)

10.01

이윤희(일반사무직1급.수원지사)→
중부네트워크관리팀

Aramco Trading Singapore 파견

09.23

김준일(3급.해외운영팀)→
인사팀 부(Aramco Trading
Singapore 파견)

정년퇴직

09.30

최영천(2급.남양주지사)

배연용(4급.고객서비스팀)

퇴직

09.20

최병철(계장.FCC1부 MHC과)

결혼

09.21 정승문(프로젝트추진2팀)

09.28 이재언(정유2과) 딸

09.29 심명재(장치설계팀)

10.04 정준화(탈황3과)

10.05 이호준(PX생산1과)

10.06 함승우(제품운영1과)

10.09 이원일(윤활유사업팀)
김지원(정유Heavy제품팀)

10.12 권민석(PO생산과)
유태원(계기1과)

10.13 윤상필(동력3과)

10.19 이승익(동력6과)
이진언(ERU과)

부음

09.06 손영일(PX생산2과) 부친

09.09 정영삼(동력2과) 부친

09.10 김성탁(교대과) 빙부

09.11 윤소영(윤활운영팀) 부친

09.18 박광수(광주지사) 모친

09.19 김석규(동력1과) 빙모
정명하(저유관리팀) 빙부

09.24 박석수(총무보안팀) 빙모

09.25 이선화(업무팀) 모친
양혜린(HR기획팀) 시모
박홍철(생산조정팀) 빙모

09.28 김한수(장치1과) 조부
하두곤(총무보안팀) 모친
하승훈(ERU과) 조모
하현영(Alkylation2과) 조모

10.01 주한기(세무팀) 외조부

10.02 안국문(기획분석팀) 부친
이상철(PX생산2과) 조모

10.04 안장호(화학생산본부) 부친

10.05 김태관(군산저유소) 외조모
박춘근(총무팀) 모친

독자마당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sabo@s-oil.com

<고전 속 핵심가치> [최고] 주일무적
지금처럼 오롯이 집중하면 미래가 기대로 가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순이(미래주유소.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봉로)

<달리는 희망 주유소> 동북주유소
우리회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전덕건(FCC2과)

<가족 추억공작소> 김동현 사우(장치1과) 가족
아기와 함께 사진 찍는 과정이 눈에 그려질 만큼 생생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안성찬(계기1과)

<달콤한 퇴근길> 등산
신입사원 교육 당시 친절한 가르침으로 인상 깊었던 선배님을 오랜만에 뵐 수 있었습니다.
조형근(대외업무팀)

<두런두런 이야기방> 명절 나기 이야기
한가위 풍경과 같이 공감 가는 사연이 좋습니다.
정명희(연구개발팀 류희열 사우 가족)

<꽃청춘 수학여행> 쿠바 올드카 여행
올드카를 경험할 수 있는 쿠바 여행 기사를 흥미롭게 봤습니다.
유병수(현대주유소.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주요 경영활동> 사랑의 송편 나누기
기사를 보고 봉사와 나눔에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민승찬(청주지사 최정은 사우 가족)

<햇살나눔> 멸종위기천연기념물지팀이 캠페인 어름치 치어 방류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활동으로 보입니다. 조성철(HR기획팀 김병주 사우 가족)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총 다섯 군데)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일상에서 사용하는 외래어나 잘못된 우리말 표현을 올바르게 써주세요.

01

태풍 피해로 마음이 ❶ 갈갈이 ❷ 갈가리
찢긴 주민들을 위로했다.

02

우리 딸은 정말
❶ 새침데기야 ❷ 새침떼기야.

9월호 퀴즈 정답

Quiz 01
다른
그림 찾기

지난호
퀴즈 당첨자

블루투스스피커
곽수진(정유2과 이수호 사우 가족) • 이수연(대외업무팀)
이지혜(HYC과 손경훈 사우 가족) • 전재춘(아로마틱생산2과)

휴대폰보조배터리
김경숙(생산최적화팀) • 김현민(PX생산1과 김대환 사우 가족)
김승현(환경운영과) • 유왕근(제품운영1과)

Quiz 02
우리말 바로 쓰기

01 추석에 조카들에게 준 용돈만
❶자그마치 ❷자그만치 50만 원이야.
→ 추석에 조카들에게 준 용돈만 '자그마치'
50만 원이야.

'만큼'과 착각해 '만치'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틀린 표현이다. '예상보다 훨씬 많이'. '적지 않게'라는 뜻을 지닌 부사는 '자그마치'다.

02 이 친구도 왕년에 ❶한가닥 ❷한가락 했지.
→ 이 친구도 왕년에 '한가락' 했지.

'한가락'은 훌륭한 재주나 솜씨를 일컫는 긍정적 표현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거나 이름을 알림을 의미한다. '한가닥'은 하나의 올이나 줄기를 의미하며 한 가닥 희망, 머리카락 한 가닥 등에 쓰인다.

올해 사보 표지는 스마트워크(Smart Work) 제도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에쓰-오일 리더의 일하는 방식(S-OIL leaders' way of working) 캠페인의
세부 항목들을 한 컷 그림으로 구성해 채워갑니다.